

# 중국근현대사학회

2024년 12월 정례발표회 및 정기총회

◎ 일시: 2024년 12월 14일(토) 14:0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7동 202호

## 중국근현대사학회 2024년 12월 정례발표회 일정표

일시 :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7동 202호

사회: 김하림(경북대)

14:00-15:00 이승수(복단대)

동치연간 청수강 하류 지역 촌락사회의 위기와 변동 : 청수강 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토론: 박찬근(연세대)

15:00-16:00 이한결(연세대)

5·4 전야의 공리와 강권 :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중국의 서양관

토론: 윤숙현(전남대)

16:00-17:00 이선희(전남대)

1930년대 두중위안(杜重遠)의 시국 인식과 신장에서의 활동

토론: 박장배(동북아역사재단)

17:00-17:10 휴식

17:10-18:00 정기총회

18:30 만찬

# 同治年間 清水江下流 지역사회의 위기와 변동

## — 清水江文書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승수

### 目 次

- I. 서론
- II. 촌락사회의 위기와 대응
- III. 물질·정신적 풍요의 붕괴
- IV. 결론
- 參考文獻
- 국문초록
- Abstract

## I. 서론

雍正年間 黔東南 지역에 대한 改土歸流 정책의 주요 성과 가운데 雍正 5년(1727) 기존의 清水江 하류 지역에 설치된 五開衛를 開泰縣으로, 銅鼓衛를 錦屏縣으로 바꾼 이른바 改衛設縣을 들 수 있다.<sup>1)</sup> 뿐만 아니라 청수강 하류 유역과 인접한 이 두 지역은 한족 상인의 진입을 제한하고<sup>2)</sup> 이들이 卦治·王寨·茅坪寨에서만 목재를 매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sup>3)</sup> 苗·侗族과 漢族 모두

1) 光緒『黎平府志』卷二上, 「地理志」, p.34a-35a.

2) 이러한 내용은 가경 2년(1797)에 세워진 『奕世永遵』 비석에 남아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2024년 7월 금병현 답사 당시에는 해당 비석의 복제본이 금병현을 대표하는 건축물 문서투의 바깥벽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경계비가 세워진 곳(卦治寨)의 상류로는 내지에서 온 상방이 뗏목을 정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비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홍길, 「清代 서남지역의 목재교역과 소수민족 상인: 貴州 錦屏縣 지역을 중심으로」, 『明清史研究』第32輯, 2009, p.120 참조.

3) 정확히 말하자면 삼체가 매년 돌아가면서(삼년에 한 번) 木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목행은 정부의 허

가 장기간 경제적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경제적 흐름 속에서 중국 내지로부터 각종 漢文化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의 묘·동족 사회가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되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다.<sup>4)</sup>

다음으로는 옹정 6년부터 11년(1728-1733)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이어진 검동남 청수강 중상류 및 都柳江 유역에 위치한 漢化되지 않은 묘족(生苗) 거주지역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이 지역에 苗疆六廳(新疆六廳)으로 불리는 행정기구를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sup>5)</sup> 이를 통해 청조는 검동남지역 일대에 수륙교통로를 확보하고 묘민들을 직접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sup>6)</sup> 그러나 이 지역의 묘족사회는 청수강 하류 지역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우선 이 지역에서는 치안유지 및 군사적 목적으로 廳을 설치 및 운영함에 따라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둔전을 경영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청조는 屯田養勇이라는 기치하에 묘민들의 비옥한 농토를 몰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묘민들이 경작권을 잃고 척박한 땅으로 내몰렸다. 또한 경작지를 잃은 농민들은 둔전에서 소작을 짓기도 했는데 당시 둔전은 소작료 외에도 각종 연납과 세금을 부과했기에 묘민의 조세부담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족 지주와 고리대금업자들이 묘민들에게 생필품이나 식량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과도한 이자를 부과했고, 이를 갚지 못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작권을 몰수하였다.<sup>7)</sup> 이로 인해 상당수의 묘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고, 이는 咸同苗民蜂起가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했다.

함동묘민봉기는 咸豐 5년부터 同治 12년(1855-1873) 사이에 귀주성을 중심으로 발생한 각종 봉기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그 가운데 張秀眉(1822-1872)<sup>8)</sup>의 묘민 봉기 규모가 가장 컸기에 ‘묘민’이라는 표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묘족 외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참여했기에 ‘各民族蜂起’라는 표

가를 받은 牙行的 일종으로 묘·동족 상인과 한족 상인은 반드시 이 목행에서 목재를 거래해야 했다. 그리고 해마다 이러한 목행을 운영하며 거래를 중개하는 권한을 當江이라 칭했다. 貴州省編輯組編, 『侗族社會歷史調查』, 貴陽: 貴州民族出版社, 1988, pp.34-35. 다만 이러한 당강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귀주순무와 운귀총독을 지낸 張廣泗의 임시적인 조치가 古例 혹은 舊規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武內房司, 「清代清水江流域の木材交易と在地少數民族商人」, 『學習院史學』第35號, 1997, p.80.

- 4) 吳才茂, 「明代衛所武官後裔的身分變遷與村落形成－以銅鼓衛劉氏指揮使爲例」, 『明代研究(臺北)』第29期, 2017, p.1.
- 5) 옹정연간 검동남 생묘 지역의 토벌과 묘강육정의 건설에 대해서는 羅康隆, 「“苗疆六廳”初探」, 『中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8(05), pp.44-45 참조.
- 6) 정지호, 「청대 검동남(黔東南) 지역의 개토귀류(改土歸流)와 묘족(苗族)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58호, 2017, p.117.
- 7) 馬少僑, 『清代苗民起義』,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56, pp.52-57; 郭必勛, 「咸同年間貴州各族農民反清大起義的根源」, 『黔南民族師專學報』, 2000(1), pp.43-47.
- 8) 귀주성 台拱廳 仰岡寨 출신의 묘족 봉기 지도자이다. 함풍 5년(1855), 包大度 등과 함께 봉기를 일으켜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黔東南 일대 묘족 지역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십 수년간 청군의 토벌에 저항하였으나, 동치 11년(1872) 전투에서 패배하여 체포되었고, 長沙로 압송되어 처형당했다. 高文德主編, 『中國民族史人物辭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p.268.

현을 쓰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봉기가 귀주성 경내에서 발생했기에 ‘귀주’를 붙이기도 하지만 광서성·사천성 등 귀주성과 경계를 접한 지역에서도 봉기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생략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해당 묘민 봉기를 봉기·반란·기의·전란 중 무엇으로 명명할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sup>9)</sup>

함동묘민봉기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胡思庸과 馬少僑는 이 시기 대표 연구자로,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함동묘민봉기의 전 과정을 시기순으로 정리했을 뿐 아니라 봉기가 실패한 원인으로 태평천국운동의 실패와 지배층의 비전 제시 미비 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기군의 지배층이 부패하지 않고 반청이란 목표 하에 단결하여 반제국·반봉건·반계급의 기치를 들었던 것을 높이 평가했다.<sup>10)</sup> 徐慶堅은 1957·1959년의 연구에서 함동묘민봉기는 苗軍(苗匪)과 號軍(教匪)의 봉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며, 이들 묘군과 호군이 때로는 연합하여 청군과 전투를 벌였을 정도로 반청의 기치 아래 양측이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sup>11)</sup>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학계의 연구자들은 함동묘민봉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하고자 했다. 그들은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봉기의 전 과정을 분석하는 한편,<sup>12)</sup> 봉기가 귀주 전역에서 발생하게 된 배경 및 白蓮教 세력이 참여하게 된 과정,<sup>13)</sup> 봉기의 실패가 역사적으로 의미하는 바<sup>14)</sup> 등 다양한 측면에서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봉기를 다시금 살펴보고자 했다.<sup>15)</sup>

- 
- 9) 이에 대해 김홍길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이를 ‘蜂起’로 명명해야 함을 지적했다. 김홍길, 「清代 湖南西部 苗亂의 終熄」, 『東洋史學研究』第157輯, 2021, p.319. 이와 달리 중국학계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에 근거하여 민중들이 일으킨 봉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으며 이는 학계에 ‘起義’라는 표현이 관습적으로 쓰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근래 중국학계 내에서도 다양한 직군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기의라는 용어를 고수하지는 않는다. 일본학계의 다케우치 후사지(武内房司)는 이를 ‘叛亂’이라 명명하였다. 서구 학계에서는 주로 ‘Revolt’나 ‘Rebell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은 묘민 봉기군이 아닌 이들 봉기군에 저항했던 촌락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기에 전란·동란이라는 표현 또한 자주 사용할 것임을 밝힌다.
- 10) 胡思庸, 「太平天國革命時期貴州的苗教大起義」, 『史學月刊』, 1954(8), pp.7-11; 胡思庸, 「太平天國革命時期貴州的苗教大起義(續完)」, 『史學月刊』, 1954(9), pp.6-11. 馬少僑, 「太平天國革命時期貴州的苗民起義」, 『歷史教學』, 1955(4), pp.19-24; 馬少僑, 『清代苗民起義』,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56, pp.52-74.
- 11) 徐慶堅, 「太平天國時代貴州苗民起義」, 『史學月刊』, 1959(5), pp.27-33; 徐慶堅, 「號軍——太平天國時代貴州各族人民起義之一」, 『史學月刊』, 1957(5), pp.15-21.
- 12) 侯哲安·翁家烈·楊有耕, 「太平天國革命時期的貴州各族農民大起義」, 『民族研究』, 1980(1), pp.24-35.
- 13) 楊德芳·翁家烈, 「關於太平天國革命時期貴州各族人民起義的幾個問題」, 『貴州文史叢刊』, 1981(1), pp.70-77; 何長鳳, 「咸同年間貴州農民起義的特點」, 『貴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2(2), pp.66-74; 曹維瓊, 「論太平天國時期貴州各族人民起義的特點」, 『貴州教育學院學報』, 1985(1), pp.17-23.
- 14) 張山, 「論太平天國時期貴州各族農民起義失敗的歷史教訓」,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8(1), pp.43-46.
- 15) 그 중에서도 何長鳳은 1984년의 연구에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재차 정리하고 사료를 보충하여 봉기의 발생원인 및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기에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何長鳳, 「粗論咸同貴州各族農民起義」, 『貴州文史叢刊』, 1984(2), pp.22-34.

1980년대 이래 함동묘민봉기에 대한 연구경향은 일련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전까지의 연구는 주로 봉기군의 활동에 집중되었다고 하면,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연구자들이 봉기 당시 청 정부의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8년 張山은 함동묘민봉기 당시 청 정부와 귀주성 지방정부의 각종 군비조달방안을 정리하였으며,<sup>16)</sup> 이후 장산과 趙宏章은 1989년과 1991년 각각의 연구에서 함동묘민봉기 이후 청조가 봉기발생지역에서 부역을 완화하고 관리들의 부패를 바로잡았으며 상벌을 분명히 하고 과거시험을 행하는 등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음을 밝혀냈다.<sup>17)</sup> 다만 당시 川軍과 湘軍 지도부 간의 갈등·군량 및 군수물자를 둘러싼 분쟁·귀주성 관료들 사이의 불화 등으로 인해 묘민봉기를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sup>18)</sup>

또한 함동묘민봉기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묘민봉기군에 대항했던 향촌방위조직인 團練에 대해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1988년, 장산은 귀주성의 단련이 청군을 도와 봉기군을 진압하는데 기여했지만, 지배층의 주도 하에 여러 민족을 착취 및 학살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음을 지적했다.<sup>19)</sup> 조홍장은 1995년의 연구에서 함동묘민봉기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각 지방의 단련 뿐 아니라 이들 단련을 이끄는 鄉紳층의 지위가 높아졌고 이는 이후 黔系軍閥이 출현할 수 있는 무력 기반을 형성했음을 강조했다.<sup>20)</sup> 張應强은 2006년의 연구에서 당시 검동남에 위치한 天柱縣 岔處鎮에서 단련을 설립하고 주변 단련과 연합하며 묘민봉기군에 저항하고 지방사회를 재건하는 과정을 서술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처진의 활동이 이후 光緒 15년(1889)에 관부가 湄江제도를 확대하여 분처진이 속한 外三江 지역에서의 목재거래를 허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sup>21)</sup> 張習琴은 2016년의 연구에서 청 정부는 단련을 활용하여 전란기 지방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봉기가 확산되면서 관부는 단련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이후 이는 청조의 약화 및 해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언급하기도 했다.<sup>22)</sup>

이처럼 80년대 이래 중국 내 함동묘민봉기와 관련된 연구성과가 확산되어가던 상황에 부응하

- 
- 16) 張山, 「咸同時期貴州軍費問題研究」, 和龔·張山主編, 『中國民族歷史與文化』,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pp.42-63.
- 17) 張山, 「論咸同貴州各族農民起義期間之清方政略」,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9(6), pp.63-66. 趙宏章, 「貴州咸同軍事時期清政府的“善後”政策」, 『貴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1(2), pp.31-34-45.
- 18) 張山, 「咸同貴州各族農民起義期間清方內部矛盾述論」,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0(4), pp.63-66.
- 19) 張山, 「太平天國時期貴州團練問題初探」, 『廣西民族研究』, 1988(3), pp.83-88.
- 20) 趙宏章, 「貴州咸同大起義與貴州地方團練勢力的形成」, 『貴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5(1), pp.19-21.
- 21) 張應强, 『木材之流動——清代清水江下游地區的市場·權力與社會』,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6, pp.85-90.
- 22) 張習琴, 「清代貴州團練與地方政治」, 『貴州文史叢刊』, 2016(4), pp.103-108.

듯 여러 해외 연구자들이 흥미로운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일례로 일본학계의 타케우치 후사시(武内房司)는 1982년의 연구에서 도광연간 이후 검동남 지역의 빈곤화 과정에서 苗匪로 불리는 무뢰 집단이 출현했으며, 이들이 묘족 촌채 내부의 기초조직인 議榔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반청세력화 되었음을 지적했다.<sup>23)</sup> 또한 그는 1988년의 연구에서 토지를 빼앗기고 생계 기반을 잃은 묘민들이 靑蓮教가 내세의 부귀영화를 보장한다는 사상에 크게 공감했으며, 이러한 사상이 청조의 통치에 반항하여 봉기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끼쳤음을 언급하기도 했다.<sup>24)</sup> 미국학계의 에드워드 맥코드(Edward McCord)는 1990년의 연구에서 함동묘민봉기 당시 興義縣 유씨가문이 가산을 투자하여 봉기의 진압에 기여한 이후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을 서술하였으며 이러한 유씨가문의 활동이 전통사회의 지방 엘리트의 발전모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sup>25)</sup> 로버트 쟁크스(Robert D. Jenks)는 1994년의 연구에서 함동묘민봉기의 발생부터 실패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했다. 그는 장기간에 걸친 봉기에도 불구하고 검동남 지역의 사회경제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은 민국시기에도 지속되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남았다고 지적했다.<sup>26)</sup>

이상으로 함동묘민봉기에 관한 주요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성과는 봉기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심화시켰지만, 대체로 봉기근과 이를 진압한 청 정부 또는 단련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데 그쳤다. 또한 연구 방향 역시 대체로 軍事史에 치중되었으며, 이는 해당 봉기에 대한 연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에서 李斌은 2017년의 연구에서 청수강문서 사료를 기초로 단련조직의 연합체인 삼영의 결성 및 삼영이 경비를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봉기 당시 청수강 하류 지역사회의 동향에 대해 주목했다.<sup>27)</sup> 다만 그의 연구 역시 묘·동족의 전통 향촌 조직인 款<sup>28)</sup> 조직이 三營이라는 군사조직으로 변화하는 과정 및 삼영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

23) 武内房司, 「太平天國期の苗族反亂について~貴州東南部苗族地區を中心に」, 『史潮』新12号, 1982, pp.26-52.

24) 武内房司, 「清末苗族反亂と靑蓮教」, 『海南史學』26号, 1988, pp.1-25.

25) Edward A. McCord, "Local Military Power and Elite Formation: The Liu Family of Xingyi County, Guizhou", Joseph W. Esherick, Mary Backus Rankin, *Chinese Local Elites and Patterns of Domina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p.162-188.

26) Robert D. Jenks, *Insurgency and Social Disorder in Guizhou: The "Miao" Rebellion, 1854-18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pp.160-163.

27) 李斌, 「從“款組織”到團練: 以咸同時期清水江流域“三營”爲中心」, 高其才·王奎主編, 『錦屏文書與法文化研究』,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7, pp.113-123.

28) 楊進銓은 侗族 내 款조직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款’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다양한 사료를 검토한 끝에 ‘款’이 한자에서 차용한 언어라거나 ‘發誓’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동시에 그는 ‘款’이 侗族의 고유어 ‘kuant’에서 유래했음을 논증했으며, 이는 ‘하나로 이어진·한 데 모인·연맹체’를 의미한다. 楊進銓, 「侗族款의名稱」, 『民族論壇』, 1990(2), pp.66-69. 이에 따르면 團 조직은 본래 동족 고유의 연합체였으나 함풍연간 전란기에 이르러서는 군사 연합체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平黔紀略』에는 “款이란 명대에 위소의 군대가 묘족을 방어하기 위한 군대로 款이라 불렀으며 지금의 團練이다.”라고 기록했다. 羅文彬·王秉恩編纂, 貴州大學歷史系中國近代史教研室點校, 『平黔紀略』, 貴陽: 貴州人民

하는 과정에 주목했을 뿐 동란기 촌락사회 내부의 동향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또한 건륭부터 광서연간에 이르기까지 연구시기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문은 清水江文書<sup>29)</sup>를 중심으로 합동묘민봉기 시기, 그 중에서도 동치연간 청수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각 촌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당시 각 촌채에서는 단련을 유지하기 위한 인적·물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해야 했고 이는 각 촌채 내부의 사회경제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진 전란은 촌채 내 개개인에게 물질적·정신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동묘민봉기가 이 지역 일대 촌락에 남긴 흔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문은 민간문서사료를 기반으로 삼은 만큼 『清水江文書』와 『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彙編』 등 기존에 간행된 사료집 뿐 아니라 근래 간행된 『九寨侗族錦屏文書輯存』와 『錦屏文書』 등의 사료집을 참고하여 당시 민간사회의 동향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 II. 촌락사회의 위기와 대응

합풍 5년(1855) 3월, 장수미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묘족 봉기는 어느덧 검동남 지역을 벗어나黔東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지만, 그 세력의 확산추세는 이전에 비해 크게 정제되었다. 또한 합풍 9년(1859) 이후에는 호남성의 군대가 검동남 지역에 투입되기 시작하는 등 관군과 봉기군은 계속해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이어나가게 된다.<sup>30)</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합풍 11년(1861)에 이르러서는

---

出版社, 1988, p.64. 또한 양진천은 당·송시기를 기점으로 동족에 ‘款’이라는 단어가 존재했고, 당시 ‘연맹’의 개념으로 ‘款’을 해석했을 뿐 아니라 한자의 음을 차용하여 동족의 언어를 기록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楊進銓, 「再談侗族款的名稱——『侗款』的“款”字探源』質疑」, 『民族論壇』, 1993(1), pp.45-48. 한국학계의 관 조직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정지호, 「清代黔東南地域苗族村寨의社會組織 및 秩序 — 款과寨老를 중심으로 —」, 『明清史研究』第57輯, 2022; 정철웅, 「款首와總理 — 清中·後期清水江北岸의保甲·團練과九寨總理 劉開厚 —」, 『明清史研究』第59輯, 2023 참조.

29) 청수강문서란 귀주성 청수강유역에 속한 묘족과 동족 마을에서 발견된 민간문서를 지칭한다. 대부분의 문서가黔東南苗族侗族自治州에 속한 금병현 내 여러 촌락들에 보존되어 있기에 錦屏文書라고도 부른다. 중국학계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청수강문서의 발견과 연구과정을 정리한 여러 편의 논문이 간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程澤時, 「清水江文書國內外研究現狀述評」, 『原生態民族文化學刊』, 2012(3), 28-31; 馬國君·李紅香, 「近六十年來清水江林業契約的收集、整理與研究綜述」, 『貴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4), pp.74-80; 張應強, 「清水江文書的收集、整理與研究芻議」, 『原生態民族文化學刊』, 2013(3), pp.33-35; 錢宗武, 「清水江文書研究之回顧與前瞻」, 『貴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4(1), pp.89-92; 吳才茂, 「近五十年來清水江文書的發現與研究」, 『中國史研究動態』, 2014(1), pp.39-50 참조. 한국학계에서는 박찬근이 2023년의 연구에서 청수강문서와 관련된 중국과 한국학계의 여러 주요 연구성과를 비교·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찬근, 「중국 貴州 지역의 ‘清水江文書’를 활용한 한·중 학계의 연구 현황」, 『전북사학』제67호, 2023, pp.108-116 참조.



당시 조정에서 귀주지역 봉기군에 대한 토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자평하고 있을 정도로<sup>31)</sup> 당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치 원년(1862) 姜映芳(1833-1862)<sup>32)</sup>의 교비 봉기군이 天柱縣城을 점령하여 북쪽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고, 이들 부대가 서진해오던 장수미의 부대와 연합군을 형성하여 청수강 하류 북안 일대로 진군해오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

이들 봉기군은 小江을 건너 남하하여 이전부터 삼영과 함께 청수강 북안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북안을 방어하던 九寨 일대를 불태우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삼영과 더불어 주요한 전력을 구성하던 북안 지역의 촌채들은 점차 기반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구채와 삼영의 부대는 주로 북안 서부의 驗洞(현 彦洞鄉)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때때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5월 16일에는 적의 맹렬한 공세로 인해 驗洞卡이 일시적으로 함락될 정도로 적의 공격은 거셌고<sup>33)</sup> 이러한 일련의 전란 속에서 구채를 중심으로 한 북안 지역사회는 결국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본래 청수강 하류의 목재 무역을 중개하던 삼채 역시 여러 차례 봉기군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었기에 삼영은 이 지역 일대로 단련을 과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sup>34)</sup>

이러한 군사적 위기 속에서 삼영은 기존의 서남부의 묘족 봉기군을 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소강 유역, 서쪽으로는 삼채까지 세력을 확장해오던 묘비와 교비까지 저지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삼영의 역량만으로는 봉기군 전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치 4년(1865) 6월 29일 봉기군은 청수강 하류 북안 지역을 공격해 대부분의 촌채를 점거했고, 삼영군과 봉기군은 청수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sup>35)</sup> 심지어 이후 동치 5년(1866)에 이르러서는 적

30) 二月，楚軍剿古州賊，屢戰皆勝，餘逆等循走，直攻都江·九寨一帶賊巢。光緒『黎平府志』卷五下，「武備志」，p.89a.

31) 黔中軍務，正當剿辦得手之際……『清穆宗實錄(一)』，咸豐十一年八月八日甲子，北京：中華書局，1987，p.105.

32) 姜應芳이라고도 한다. 귀주성 天柱縣 塗溪寨 출신의 동족 봉기 지도자이다. 어린 시절 가족이 관료와 지주의 학대로 희생되자 복수를 맹세했다. 함풍 5년 태평천국운동의 영향을 받아 고향에서 天地會를 조직하고 “부자를 타도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자”는 구호로 봉기를 일으켰다. 장수미의 묘족 봉기군과 협력하여 수 차례 청군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최대 10만에 달하는 병력을 거느렸으나 결국 패배하고 체포되었다. 동치 원년 11월, 銅仁府로 압송되어 처형당했다. 高文德主編，『中國民族史人物辭典』，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p.424.

33) (五月)十六日，賊破驗洞大卡。姜海聞·姜元卿著；王宗勳點校，「三營記」，『貴州檔案史料』，2001(1-2)，p.83. 光緒『黎平府志』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五月十六日，賊攻府屬東北路驗洞卡，軍功楊積瑤陣亡。驗洞地峭壁摩天，勢極險，俯瞰柳霧城，與苗營鼓角相聞，自咸豐六年設卡。天柱旋失，教匪結苗破黃悶洞·庭卡，燒平秋·石引，而驗洞反在其外，向爲瑤光九寨屏障。至是，賊環攻，腹背皆敵，黎平東北路第一要隘遂失。光緒『黎平府志』卷五下，「武備志」，p.99b.

34) 姜海聞·姜元卿著；王宗勳點校，「三營記」，『貴州檔案史料』，2001(1-2)，p.83；光緒『黎平府志』卷五下，「武備志」，pp.99b-100a.

35) (同治四年六月)廿九日，(賊破)平秋·石引·黃悶，勢如破竹，遍連地內，三營無日安寧。姜海聞·姜元卿著；王

들이 平秋寨를 병참기지로 삼아 북안 지역에 대규모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봉기군은 청수강 하류 남안 반대편에 위치한 三板溪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압박을 가했을 뿐 아니라, 동쪽으로는 모평채를 불태우고 왕채와 과치채 심지어 藕里(偶里鄉)까지 위협했다. 이로 인해 삼영은 북쪽과 동쪽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기에 이른다. 36)

심지어 동치 6년(1867) 1월에는 장수미의 봉기군 중 만여 명이 구채를 거점으로 남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고, 다른 일부 봉기군 부대는 삼강의 봉기군과 연합하여 남하해왔다. 16일에 봉기군은 우리를 점령했고, 18일에는 우리를 점령한 봉기군이 남하한 봉기군과 평추채에서 합류하여 평략진을 공격했다. 이에 따라 삼영의 부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평오채의 黄土坡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20일의 두 차례 전투에서 삼영은 대승을 거두었으며 21일에는 적을 성공적으로 격퇴하자 봉기군은 과치채에서 북쪽으로 강을 건너 퇴각하게 된다. 이후 2월 14일에는 장수미의 부장인 文三黨(?·?)이 수천의 부대를 이끌고 平略渡를 지나 평오채 황토파에 대한 화공을 시도하며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으나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철수한다. 또한 3월 8일에 장수미의 부대는 구채에서 남하한 후 9일에 부교를 설치하여 청수강을 건너 평오채를 공격하려 했지만, 마찬가지로 패퇴하고 말았다.<sup>37)</sup> 이를 기점으로 봉기군의 청수강하류 남·북안 일대에 대한 공세는 종말을 고했으며 이후 봉기가 진압됨에 따라 금병현 내 청수강 하류 지역은 가까스로 전란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치 연간에 구채를 중심으로 한 북안 지역이 봉기군의 손에 넘어가면서 청수강 하류 남안 지역은 적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었고, 이전에 구채와 연합하여 군사 작전을 펼치던 삼영은 이제 홀로 봉기군에 맞설 수밖에 없었다.<sup>38)</sup> 또한 구채를 중심으로 한 북안 지역의 민간사회가 붕괴됨에 따라 삼영은 이 지역에 진입해오는 봉기군을 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수강 하류 지역 일대 아직 점령되지 않은 촌채를 재건하고 난민을 받아들여 적에 대항할

宗勳點校, 「三營記」, 『貴州檔案史料』, 2001(1-2), p.83. 다만 『平黔紀略』은 『三營記』와 다르게 이를 7월 1일로 적고 있어 두 문헌에서 날짜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同治四年)秋七月. 初一日, 寨蒿苗剽掠黎平驗洞·平秋·石引·九寨, 復分出育洞·黃悶, 逼天柱. 羅文彬·王秉恩編纂, 貴州大學歷史系中國近代史教研室點校, 앞의 책, 1988, p.28.

36) 이에 대해서는 姜海聞·姜元卿著; 王宗勳點校, 「三營記」, 『貴州檔案史料』, 2001(1-2), p.84. 참조. 光緒『黎平府志』 또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同治五年)九砦一帶賊文三黨·楊大六·鮑大肚等爲之翼, 東北路瑤光九寨無甯居. 光緒『黎平府志』卷五下, 「武備志」, p.105a.

37) 동치 6년 1월부터 3월에 이르는 청수강하류 남안지역 일대를 둘러싼 공방전에 대해서는 姜海聞·姜元卿著; 王宗勳點校, 「三營記」, 『貴州檔案史料』, 2001(1-2), pp.84-86. 光緒『黎平府志』卷五下, 「武備志」, p.105a-b 참조.

38) 비록 청수강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청수강하류의 남안과 북안은 맞닿아 있기에 필요한 경우 함께 군사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청수강하류 서쪽 지역의 거점인 柳霽城이 함락되었을 때 三營과 九寨의 단련이 함께 군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지리적 의미에서 청수강하류 남북안 일대를 “瑤光九寨”로 통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光緒『黎平府志』卷五下, 「武備志」, pp.99b-105a 참조.

연합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다. 39)당시 이러한 삼영의 활동은 『三營記』 뿐 아니라 민간문서에도 남아있어, 전란기 서남 변방에 위치한 苗·侗族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창을 제공한다.

契1) 토지개간을 요청하는 계약을 작성하는 사람 盤里寨 楊老學·楊老學 형제는 지방에 반란이 발생하고, 강도가 거주지를 점거하므로 中營 平鰲寨로 도망쳐 와서 할 수 없이 생계를 잇고 있었으므로 자원하여 姜海龍의 산장 한 구역을 요청했다. 그 산의 주인 강씨는 이전에 개간하여 일찍이 심어둔 삼나무가 모두 成林하였는데 강씨의 산을 개간하고 경작하기를 청했다. 다만 개간하고 경작하여 식량을 얻어 생계를 잇고자 하는 것이니 삼나무의 재수 양씨는 지분을 바라지 않는다. 이 산은 이미 경작하지 않으므로 이후 산주 강씨가 판매·벌목·관리하며 경작한 사람은 후회하거나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구두로는 증빙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 토지개간을 요청하는 계약을 작성하여 증거로 삼는다.

憑中 韓老喜 代筆 姜克明  
동치 6년 1월 16일 작성40)

契1)은 동치 6년 1월 16일에 청수강 하류 남안에 위치한 平鰲寨에서 작성된 ‘토지개간을 요청하는 계약’이다. 양씨 형제는 원래 거주하던 盤里寨(현 錦屏縣 仁里)에 봉기군이 쳐들어와 이 지역을 점령하자 강을 건너 평오채로 피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원래 살던 곳을 떠나 타지로 도망쳐 온 이주민이었던 만큼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때문에 양씨 형제는 평오채의 강해룡이 소유한 산지에서 임시로 머물며, 그곳에 심어져 있는 삼나무를 관리하고 곡식을 파종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임지의 소작인 재수가 산주와 길러낸 삼나무를 1:1 또는 2:3 비율로 나누던 것41)과 달리, 이들에게는 길러낸 삼나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契1)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이 지역 일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계약이 작성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이 계약서의 작

39) (同治四年)七月初三, ……一面招集難民, 一面商籌進剿, 一面發丁偵探; (同治六年)四月初五日, 府主諭中營往下營過九寨招撫難民. 姜海聞·姜元卿著; 王宗勳點校, 「三營記」, 『貴州檔案史料』, 2001(1-2), pp. 84-86.

40) 立討地挖字人盤里寨楊老學, 楊老學弟兄, 爲因反亂地方, 強盜占住, 逃出中營平鰲寨, 無奈度日, 自願求到姜海龍之山場一大塊. ……其山主家姜姓先挖通過早以栽杉俱成, 求到挖種姜姓之山. 只想挖種得飯度日, 杉木栽手楊姓不想股數之情. 此山既不種飯, 之後恁憑山主姜姓修理·發賣·砍伐·管業, 種地之人並不翻悔異言. 恐口無憑, 立此討地挖字爲據. 憑中 韓老喜 代筆 姜克明 同治六年正月十六日立. 張應強·王宗勳主編: 『清水江文書』第2輯第1冊,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p.82.

41) 일례로, 청중후기 평오채의 산주와 재수 사이의 분성비율 통계에 따르면 161건 가운데 155건의 임업조건계약에서 산주와 재수가 1:1 또는 3:2의 비율로 성립 이후 지분을 분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相原佳之, 「清代中國·貴州省清水江流域における林業經營の一側面——『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集編』平鰲寨文書を事例として」, 唐立·楊有慶·武内房司主編, 『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集編(1736-1950年)』第3卷 研究篇,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2003, p.135.

성 날짜는 동치 6년 1월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청수강 하류 남안 지역은 봉기군의 침입을 받아 藕里가 함락되었고, 적군이 시시각각 평략채를 목표로 진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들은 봉기군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안전한 평오채로 몰려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촌락의 입장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지방사회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단련에서는 이들 난민 가운데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을 선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함풍 9년(1859)에 작성된 관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합의한 조목에 따르면 그 가운데 “피난 온 사람들은 각 마을에서 조사하여 건장한 이가 전투에 참여하면 임시 거주를 허가한다”<sup>42)</sup>고 했는데, 이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團丁의 모집 및 선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난민으로 오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 묘족 봉기군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들을 전장에 투입하는 것은 봉기군에 대한 저항감을 고취하고 단련의 전의를 진작하는데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각 촌락과 단련도 난민을 받아들여 이들을 전투에 투입하고자 했다.

다만 이와 달리 난민을 받아들이는 산주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촌락민들은 자신들의 촌락에 의식주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고 있었는데, 전란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게 되면 이를 모두 상실하는 것이었으므로 피난을 온 기간 동안 그들에게 충분한 옷가지와 식량, 그리고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관건이었다. 때문에 산주는 자신의 산지 가운데 일부를 난민에게 제공하여 그들이 곡물을 파종하도록 돕는 동시에,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그 산지의 삼나무를 관리하고자 했다. 비록 이들 난민은 임업조건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소작인 재수와는 달리 삼나무를 기르는 대가로 주어지는 裁手股分 등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토지는 기존의 촌락에 머물 수 없던 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제공하여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잠시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란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단련조직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본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만 갔다. 본래 삼영을 구성하는 자본 가운데 상당수가 관부의 지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각 촌락 내 구성원들의 기부에 의존한 경향이 매우 강했다. 심지어 당시 관부는 관군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과 인력 모두 충분치 않았으며, 이로 인해 종종 각 촌락에 필요한 물자를 요구하거나<sup>43)</sup> 때로는 삼영군의 파병을 지시하기도 했다.<sup>44)</sup> 게다가 전란이 수년간 지속됨에 따라 각 촌락의

42) 譚洪沛編, 『九寨侗族錦屏文書輯存』第7冊, 南京: 鳳凰出版社, 2019, p.109.

43) 張應強·王宗勳主編, 『錦屏文書』第1輯第3冊,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20, p.64.

44) 『삼영기』에 따르면 당시 삼영은 함풍 7년 네 차례, 함풍 8년 네 차례, 함풍 10년 한 차례, 함풍 11년 두 차례, 모두 열 한 차례 여평부 지부의 명령을 받아(接府主札) 출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姜海聞·姜元卿著; 王宗勳點校, 『三營記』, 『貴州檔案史料』, 2001(1-2), pp.80-83.

인적·경제적 부담은 점차 커져만 갔고, 이로 인해 각 촌락과 단련조직은 지속가능한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契2) 단련을 정돈하고 관 조직을 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烏有·苗埂·扣黑·雄黃·烏德溪·果坐·宰姑·柳客·銀廣坡·龍海·高增·大坪·濫泥漚·水漚·禮格·歸遂 등지의 사람들은 함풍 6년(1856)에 역도들이 반란을 일으켜 맹위를 떨치며 경내로 난입하니, 그 해 11월 9일 삼영과 여러 촌체가 연합하여 함께 合同을 작성하여 3:7로 토지의 생산물을 분배하고 호구와 장정을 나누어 배치하여 토벌에 협력하고 포상하는 자금으로 삼았다. 우리 일대 경계 지역은 상·하영으로 나뉘어 여러 촌락이 함께 적에 맞서 싸운 이래 지금까지 군사를 일으킨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단련의 피로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제 흉년을 당하여 마침내 불법의 무리가 이러한 기근을 빌미로 무리를 모아 노략질을 행하여 피해가 막심하다. 鄉團이 성에 가서 이를 보고하고 고발하였으므로 府主이신 周憲<sup>45</sup>께 지시를 받아 단련을 정돈하도록 비준해주시니 비로소 안정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일대에서 상하가 合同하여 하나의 관 조직이 경비를 비축하는데 모두가 뜻을 함께하였으니, 만일 단련을 합하여 무리를 규합하고 신속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외딴 산촌이 어찌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함께 의논하여 앞으로 다시 강도가 창고나 가산 등 지켜야 할 것을 약탈하는 자는 모두가 함께 관부로 압송하고, 만일 선량한 자를 속여 해를 끼치게 되면 반드시 무리의 우두머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며, 실제로 해를 끼쳤다면 모두가 함께 관아로 압송하여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동일한 계약서 다섯 장을 작성하여 각 처에서 한 장씩 받아 보관하니 영원토록 평안히 보존하여 증거로 남긴다.

1. 비적이 접근하면 출동하여 방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 경비는 널리 조달하며 일정한 양의 곡식을 거두어야 한다. 음식과 물자가 충분하면 싸우고 지킬 수 있다.

2. 무릇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원한으로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면 모두가 함께 가서 시비를 가리고 돼지를 잡아 관아에 보고하는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 모든 비용은 공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당사자 한 사람만이 전적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

3. 지금 신속히 보호하려면 반드시 공적으로 시작하고 공적으로 끝내야 하며, 해야 할 일을 행할 때 결코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무리에 저항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소를 끌고 가고 곡식을 거두어 가산을 몰수할 것이다.

4. 관 조직에는 낯선 사람을 머물도록 하거나, 안팎으로 결탁하여 내부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열 집마다 牌首<sup>46</sup>를 두니 각 패는 신중히 하며 방해한다는 근심이 없도록 하라.

5. 관 조직은 무리에 기대어 선량한 사람을 기만해서는 안 되며, 만일 그 안에서 그러한

45) 周步瀛(?-?), 直隸 昌黎사람이다. 동치 6년부터 동치 8년(1867-1870)에 이르기까지 여평부 지부를 역임했다. 光緒『黎平府志』卷六下, 「秩官志」, p.73a.

46) 牌長이라 부른다. 청대 保甲制 하의 기층조직인 牌甲의 주요 구성원으로 편성방식은 다음과 같다. 10호당 패장 하나를 두고 10패 가운데 1甲長을 두며 10갑 가운데 1保長을 둔다. 趙德馨主編, 『中國經濟史大辭典』, 武漢: 崇文書局, 2022, p.595.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리의 우두머리는 필히 공적으로 타일러야지 돈을 내어 사람을 모으거나 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무릇 출진하여 비적을 저지하거나 창고를 약탈하여 해를 끼치는 데 있어서 단련을 정돈하여 적을 저지하는 것이 요체이다. 부상자는 부상의 경중을 보아 돈을 내어 상처를 치료하고, 사망자는 돈 8,400문을 내어 장례를 치른다. 만일 해를 끼친 강도를 때려죽인 자는 살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모두 단련에서 책임진다.

7. 누군가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5,000문을 내어 앞장서서 인솔하며, 공적인 것에 기대어 사적인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일을 마쳤을 때 닭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결산하면 모두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8. 도적을 숨겨주면 무리에서 벌금을 부과하여 무리에 귀속시키고 무리를 통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면 각처의 작은 관 조직으로 귀속시킨다.

이상의 각 조항은 모두가 함께 부담하며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무릇 금전과 곡식·마부와 말·기타 항목은 이전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내역을 열거하여 경비를 저축하고 방비하며 조사하는 자본을 갖추고자 하니,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부자의 성명·기부금액·문서 보관처 등 생략)

동치 8년 6월 6일 衆等公議 楊鐘學 작성<sup>47)</sup>

契2)는 동치 8년(1869년)에 鄧茨村(현 啟蒙鎮 頓茨村)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단련을 정

47) 立齊團合款約人地名烏有·苗埂·扣黑·雄黃·烏德溪·果坐·宰姑·柳客·銀廣坡·龍海·高增·大坪·濫泥漕·水漕·禮格·歸遂等處，肇自咸豐六年逆匪作叛，猖獗入境，于本年十一月初九日連合三營衆寨公立合同，三七抽田，分派戶丁，協力堵剿，以作蔣賞(獎賞)之資。予一帶界上等處分爲上下兩營，連同衆寨抵敵以來，迄今軍興多載，團力之疲憊，自不可勝言矣。今當凶荒之歲，竟有不法之徒，藉此饑饉，糾衆強擄，受害甚多。鄉團上城稟報控告，蒙府主周憲賞予批示，准予齊團保固，方得清平。是以一帶界內，上下合同，壹款籌積經費，大家衆志齊心，若非合團，似此糾黨搶護，孤村山逢何獲安寧？公議自往之後，再遇強徒拷倉並家財概護者，衆等即齊捆送，倘有欺良生端磕害，須當經憑衆首理論，果屬磕害，衆等即齊捆拿送官究治。公立合同五紙一樣，各處收執一紙，永久安平存照。

一議：賊匪逼近，出隊防者，須當一同。經費宜廣籌，勛穀當抽，食足用足，可戰可守。

一議：凡遇冤枉，生端挾嫌磕害，衆等齊赴理講，宰豬經衆稟官用費。衆等公出，非在事主一人全當。

一議：茲當搶護之事，務須公起公落，應辦行事，切勿吝惜，抗衆不從，齊衆拖牛收穀，傾家歸公。

一議：款內不准停留面生歹人，內勾外合，引水滴牆。須設立十家牌首，各牌謹慎，以免關礙之憂。

一議：款內切勿倚衆欺良，若是內中與內做事者，衆首須當公勸，不得出錢齊人相邦。

一議：凡出隊抵匪，並拷倉磕害，謹要齊團抵敵，如傷者，視輕重出錢養傷，斃命者，出錢捌千四百文以作消埋。如打斃磕害強徒者，不關兇手之事，俱在團衆承當。

一議：誰家遇事，必須出錢五千，當先爲事領手，不可倚公積私。完事之時，宰雞鳴神，算帳衆可心平。

一議：凡納賊，經衆罰項歸衆，不經衆罰項，則歸各處少款。以上各條款，衆同當，餘者各當。凡有錢糧·夫馬·雜項，照前所當。

計開等積經費，以備防堵並磕索之資，所列芳名：

……(記載捐贈者的姓名和捐款金額)

同治捌年六月初六日衆等公議楊鐘學 立

譚洪沛編，《九寨侗族錦屏文書輯存》第8冊，南京：鳳凰出版社，2019，pp.58-59.

돈하고 관 조직을 합하는 규약'으로 청수강 하류 남안에 위치한 촌락 가운데 상·하영으로 분할된 여러 촌락들이 연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 계약은 함풍 6년(1856) 이후 적의 침입과 삼영의 설립 과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간략히 서술했다. 다음으로는 삼영이 장기간 군사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團丁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흉년에 강도가 횡행하는 등 지역사회가 위기에 처했지만, 당시 여평부의 지부에게 단련의 정비를 허락받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언급했다. 끝으로, 단련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公議를 작성하고, 마을의 창고 또는 가산을 약탈한 강도·선량한 사람들을 속여 해를 끼친 자 등은 마을의 지도자들이 시시비비를 가려 그들을 관아에 압송하여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할 것임을 기재했다.

또한 위 단련 공의는 함풍연간 이래 단련조직의 운영규정이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치 6년을 기점으로 청수강 하류지역에 대한 봉기군의 침입은 점차 작위를 감추었고, 이후 동치 8년에 이르러서는 촌락 안팎에서 몇몇 비적들이 약탈을 행하기도 했지만 봉기군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짐에 따라 삼영의 파병 활동 또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련의 활동이 십여 년을 넘어서면서 단련조직의 장기적 운용에 따른 각 촌락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갔다. “지금까지 군사를 일으킨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단련의 피로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문구는 당시 단련에 속한 단정들의 신체적 피로 뿐 아니라 단련을 운영하던 각 촌락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흉년이 겹치고 그 과정에서 강도가 횡행하자 관부에 그간의 사정을 호소하게 되었고, 이후 지부로부터 단련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허가를 얻어 지방이 안정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강도조차 퇴치하기 어려웠던 이 지역 일대 촌락들의 열악했던 상황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도적들에게 약탈을 당한 피해가 상당했다는 것을 볼 때, 당시 해당 촌락들이 각각 상·하영에 속해 있었음에도 정작 이 지역에 도적들이 발생했을 때 삼영으로부터 제대로 된 군사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당 촌락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관 조직으로 합한다는 것은 이들이 함풍 6년 10월 6일에 설립된 상·중·하영의 체계에서 벗어나는 행정상의 변화를 꾀하였으며, 이들의 논의를 지부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 상·중·하영이 아닌 새로운 향촌방위조직을 창설할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와 동시에, 이 계약에는 여덟 조항의 단련 공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의 규약에 비해 단련조직의 운영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현저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조항부터 단련경비 및 식량 비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련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특정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단련이 관부에 보고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임을 강조하여 단련에 대한 특정 개인의 영향력 강화 혹은 특정 개인에 대한 착취를 경계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단련의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경비와 물자·인력 지출을 아끼지 않도록

했고, 이러한 단련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자산을 몰수하여 단련의 질서와 단결을 유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단련 내 패수를 두어 촌락 내 상호간 감시체계를 형성하였으며, 단련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는 경우 사적인 제제가 아닌 공적 경고를 가하여 단련 내부의 행정체계가 투명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동시에 전투 중 발생한 부상자에게는 치료비를, 사망자에게는 장례비를, 다른 누군가에게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제공하여 단련 구성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업무를 마쳤을 때 “닭을 잡아 鳴神을 행하여” 정산하였고, 48) 단련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심지어 곡식과 은·량·말·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 것을 볼 때, 이전의 단련조규에서 단련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용에 대해 언급했을 정도로 이 시기에 이르러 단련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이미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련조직이 함풍연간 이래 수 차례 단련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 자금관리방식에 대해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기부한 토지나 처벌로 거둔 자금만으로는 단련조직의 전체 운영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련 수입원의 대부분이 농업에 기반한 이상 흉년에는 수입도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유용한 방식은 다른 이들로부터 별도의 금전적 기부를 받는 것이었다. 때문에 契2)에는 이전에 작성된 다른 단련공의와는 다르게 문서의 말미에 기부자 46명의 성명 및 그들 각자가 기부한 500에서 15,000문에 달하는 금액을 기재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함풍연간 이래 촌락민의 토지 뿐 아니라 금전 기부가 있었음을 문서상으로 증명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란이 지속됨에 따라 기부에 대한 촌락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청수강하류 일대 촌락들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상으로 본문에서는 민간문서를 통해 동치 원년부터 동치 6년에 이르는 전란기 청수강하류 일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시기 묘족봉기군은 교비봉기군과 연합하여 복안 일대를 점거했을 뿐 아니라 삼영과 봉기군이 청수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국면을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검동남 지역 목재거래의 중심지였던 삼채 역시 봉기군의 위협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수강 하류 남안 일대는 군사적·경제적인 긴장감 및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이

48) 宰牲鳴神이라고 하며, 간략하게는 鳴神 또는 神判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이 지역의 고유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 쌍방 사이에 특정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시 닭·돼지·소 등의 재물을 바쳐 신의 뜻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武内房司, 「鳴神と鳴官のあいだ-清代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に見る苗族の習俗と紛争處理-」, 唐立·楊有廣·武内房司 主編, 『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彙編(1736-1950年)』, 第3卷, 東京,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2003, pp.102-103. 이러한 방식은 당사자 간 합의 도출에 강력한 신적 권위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宰牲鳴神은 청·중후기 묘·동족 사회의 관습법적 체계와 종교성이 결합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러한 위기 속에서 삼영은 기존의 경내에 있던 군사시설을 점검하는 동시에 봉기군에 대항하는 전선을 구축하였으며, 각 촌채에서는 난민을 모아 그들에게 소작지를 제공하는 한편 그들 가운데 일부를 단정으로 모집하여 병력수급을 계획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동치 6년 이후, 청수강 하류 지역은 다시금 안정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동치 12년(1873)까지 전란은 지속되었고, 각 촌채는 단련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심지어 흉년이 겹치면서 촌락 내외에는 비적들이 출몰하여 강도질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여러 촌락들은 단련공의를 작성하고 단련을 정비하여 단련에 투입되는 비용을 조정하거나 단련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등 이전 시기에 비해 단련의 운영 및 자금관리에 대한 논의가 점차 진일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의 관리 역시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수입의 확보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기존 단련조직이 경영하는 토지수입 혹은 벌금만으로는 비용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때문에 별도의 기부금을 받는 대신 기부자들 개개인의 성명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Ⅲ. 물질·정신적 풍요의 붕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영이 설립된 이후 청수강 하류 지역의 농민들은 토지 생산량의 30% 가량을 삼영에 기부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단련 공의에 따라 삼영이 병력을 파견할 때마다 농작물 수입 가운데 일부를 단련에 추가로 기부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9)</sup> 이 외에도, 단련과 府·縣 관아의 비정기적인 연납 요구는 해당 지역의 민간 경제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삼영기』에 따르면, 동치 원년(1862) 10월경, 하영의 총리 姚廷楨이 여러 차례 ‘별도의 연납을 통한 속전(格外捐罰)’을 남용함에 따라 하영은 민심을 잃어 단정을 모집하기 어려워졌고 상영과 중영(中營)만이 실질적인 군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sup>50)</sup> 심지어 다음 해 7월과 11월에는 관부에서 관직을 매매하였고 이로 인해 “각지에서 연납을 통해 문무관원이 된 자가 셀 수 없다”고 했을 정도였다.<sup>51)</sup> 관부와 단련의 잦은 연납 요구는 당시 관군 및 단련의 운영 자금이 부족했으며, 동시에 관

49) 이에 대해서는 譚洪沛編, 『九寨侗族錦屏文書輯存』第7冊, 南京: 鳳凰出版社, 2019, p.109 참조.

50) (同治元年十月)又因姚廷楨屢於下營地方格外捐罰, 下營人心亦暫解體, 呼應不靈. 至是雖有三營之名, 只有兩營之實. 姜海聞·姜元卿著; 王宗勳點校, 「三營記」, 『貴州檔案史料』, 2001(1-2), p.83.

51) 同治二年七月, 府主袁開捐. ……十一月, 府主馬·縣主胡復行開捐. 姜海聞·姜元卿著; 王宗勳點校, 「三營記」, 『貴州檔案史料』, 2001(1-2), p.83. 다만 7월과 11월에 관직을 매매한 지부는 각각 袁鴻基와 馬樹淸으로 『청실록(淸實錄)』에 따르면, 원홍기는 8월 23일 “취미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분발하지 못한다(嗜好太重, 不能振作)”는 이유로 혁직되었다. 『淸穆宗實錄(二)』, 同治二年八月二十三日丁酉, 北京: 中華書局, 1987, p.564.

리와 단련 총리 등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사익을 도모했을 정도로 당시의 吏治가 와해되었음을 의미한다.<sup>52)</sup> 이러한 연납요구는 촌채 내 촌민들의 가계를 점차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촌민 간의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契3) 軍功 孫興順(可武)가 아뢰옵니다. 나이는 60세이며 성에서 □리 떨어져 있습니다. 빈곤하고 어려운데다가 연납이 거듭되어 불쌍한 이를 살피주시길 간청하는 일. 저의 거주지의 지명은 鄧茨이며 온 집안에 30여 명의 장정이 있고 산이 반이고 물이 반인 곳으로 매년 300擔<sup>53)</sup>의 곡식을 수확하니 각 장정이 벼 10담을 수확하는 셈입니다. 苗匪가 창궐하자 작년 11월에 군에 곡식 190담을 기부하였고, 총리인 姜含英과 姜大榮에게 주어 함께 단련을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세 차례 비적과 맞서 싸웠으므로 저는 그 즈음 □ 다섯 마리, 소 한 마리를 잡아 병사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 때 저의 기부는 살을 도려내어 상처를 치료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네 아들이 단련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농사에 지장이 생길 것이나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였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부유한 자는 자금을 내고 가난한 자는 병사를 내는데, 저의 집안은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데 물자와 병사 모두를 내어주었습니다. 지금 몇몇 差役이 제게 다시 30,000문을 다시 연납하라 하니, 그리하면 돈이 부족하고 곡식이 바다나서 온 마을이 □을 우러러 탄식할 뿐입니다. 옳되려 인자하신 하늘에 간청하오니 온 마을을 면해주시어 남은 생애 의지할 것이 있게 해주시면 은혜가 만세에 드리울 것입니다. 이에 사정을 기록하여 青天大老爺 앞에 아뢰오니 불쌍한 이를 살피주시어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sup>54)</sup>

契3)은 등자촌의 손흥순이 작성한 탄원서로 자신의 나이와 집안 전체의 丁數, 지리 환경, 곡식의 수확량 등을 기재했다. 또한 함풍연간에 전란이 발생한 이래 손흥순 본인이 봉기군에 맞서싸

52) 실제로 당시 묘족 봉기군의 진압을 다룬 대표적인 사료 가운데 하나인 『함동귀주군사사(咸同貴州軍事史)』에는 전란이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吏治의 붕괴를 지적하기도 했다. 凌惕安撰, 『咸同貴州軍事史(二)』, 臺北: 文海出版社, 1967, p.511.

53) ‘擔’은 곡물의 수량을 측정하는 단위 가운데 하나로 본래 “어깨에 짊어지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였으며, ‘1擔’은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곡식의 수량을 나타낸다. 唐智燕, 「清水江文書中特殊計量單位詞考源」, 『原生態民族文化學刊』, 2018(4), p.38. 청수강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石·擔·擔·挑와 같은 수량사는 모두 동일한 단위로 사용되었고 1擔은 90斤(약 45kg)에 달한다. 龍澤江·譚洪沛·吳小平, 「清水江文書所見清代貴州苗侗地區的田糧計量單位考」, 『農業考古』, 2012(4), p.15. 그러나 전근대시기에는 마을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저울에 따라 1擔의 무게가 80근(약 40kg)에서 120근(약 60kg)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54) 具稟軍功孫興順可武, 年已十歲, 離城□里. 爲疲難重捐, 乞恩察核憐憫事. 緣軍住居地名鄧茨, 全家三十余丁, 半山半水, 每年收穀三百擔, 每丁禾登十擔. 因苗匪猖獗, 於去歲十一月軍捐穀一百九十擔, 交與總理姜含□(英)·姜大榮同領養練. 繼後三次與匪對敵, 軍前後殺□(豬)五隻·牛一隻, 謝慰練丁. 茲時軍捐如同剜肉醫瘡. 更加四子出練, 將來農業有誤, 無奈以報國恩. 款議富者出資, 貧者出力. 軍家不富不貧, 資力兩出矣. 今有原差數人, 欲軍再捐錢三十千文, 則軍錢匱谷空, 全煙仰□致歎耳. 伏乞仁天, 容免全煙, 殘生有靠, 恩睡萬載. 爲此錄情, 稟明青天大老爺閣前, 賞准察核憐憫施行. 譚洪沛編, 『九寨侗族錦屏文書輯存』第7冊, 南京: 鳳凰出版社, 2019, p. 242.

우고 전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단련에 곡식을 기부하고 가축을 제공하는 등 적지 않은 가산을 투입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집안의 네 아들 또한 단련에 참가하며 집안의 농사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이를 감수하는 등 가능한 한 “물자와 병사를 모두 내어줄” 정도로 집안 전체적으로 위국보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관부에서는 전란을 지속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차역 등의 말단 관리가 손흥순에게 3만문이라는 큰 액수의 연납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는 이러한 관부의 과도한 연납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여평부 지부에게 연납을 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위 탄원서에는 몇몇 부분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지만 이 내용만으로도 여러 사실 혹은 정황을 추려낼 수 있다. 우선 등자촌은 당시 지리상으로는 하영의 大坪에 속해있었지만<sup>55)</sup> 이 지역은 하영의 번두리에 위치하는 변계지역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문서에 총리로 기재한 강함영과 강대영은 각각 전란기 중영에 속한 문두채와 가지채의 주요 인물이며 손흥순이 이들이 속한 조직에 기부한 것을 볼 때 손씨가족은 등자촌에 속해있지만 행정상으로는 중영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한 해당 문서가 작성된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묘비가 창궐하여 작년 11월에 군에 곡식 190담을 기부”하였다고 언급한 것에 더하여, 함풍 6년 11월 9일의 계약문서에서 토지 기부와 관련된 포고문이 각 촌채마다 작성 및 고시된 것을 볼 때<sup>56)</sup> 해당 문서는 함풍 7년 혹은 그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탄원서에 자신을 민으로 적지 않고 軍이라 적은 것을 볼 때 손씨가족은 군호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이들 군호는 原籍軍戶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군호는 평시에는 민호와 동일한 부역을 부담하였지만 전시에는 군역에 징집되었으며, 그 외에도 위소군호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이들 군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sup>57)</sup> 특히나 탄원서에 따르면 무려 자신의 네

55) 契2)와 譚洪沛編, 『九寨侗族錦屏文書輯存』第7冊, 南京: 鳳凰出版社, 2019, p.105 문서에 따르면 등자촌은 당시에 大坪에 속해 있으며 『삼영기』에 따르면 대평은 삼영의 설립 당시 하영에 속해 있었다. 현재 등자촌은 대평과 마찬가지로 錦屏縣 啓蒙區 歸故村에 속해있다. 錦屏縣誌編纂委員會編, 『錦屏縣誌』,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5, p.70.

56) 이에 대해서는 譚洪沛編, 『九寨侗族錦屏文書輯存』第7冊, 南京: 鳳凰出版社, 2019, p.105 참조.

57) 군호의 유형에 대해 세분화 한 대표 연구자는 李龍潛이다. 그는 1982년의 연구에서 군호를 부·주·현에 주둔하는 郡縣軍戶와 위·소에 주둔하는 在營軍戶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이들 군현군호는 병부의 도독부에 속해있어 호부에 속하는 민호와는 엄연히 다르며 이러한 군호의 직역이 세습되었을 뿐 아니라 평시에는 자영농으로 활동하며 민호와 동일한 부역을 부담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李龍潛, 『明代軍戶制度淺論』, 『北京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1982(1), pp.46-47. 顧誠은 1989년의 연구에서 군호를 州縣軍戶와 衛籍軍戶로 나누었으며 위적군호에 결원이 발생했을 시 주현군호가 이를 보충해야 했는데, 이것이 주현군호에게 부담을 주어 계속해서 주현군호의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정작 충군한 이후에는 종종 원적의 주현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음을 언급했다. 顧誠, 『談明代的衛籍』, 『北京師範大學學報(社科版)』, 1989(5), p.63. 於志嘉는 군호를 원적군호, 위소군호, 附籍軍戶로 나누었고 이들 군호 중에서 원적군호와 위소군호는 부역 형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그는 일반적으로 원적군호의 부역이 민호와 다를 바 없지만, 그들은 위소군호에 대한 병력 보충과 지원 보조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위소군호와 원적군호 간에 명확한 권리와 의무 관계

아들이 단련에 차출되었는데, 한 집안에서 이렇게나 많은 장정들이 차출된 것은 전시에 군역에 투입되어야 했던 군호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호의 부역을 감안하면 당시 군호는 평시에도 민호에 비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전시에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손홍순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남아있는 계약문서에 근거하면 손홍순은道光 20년부터 함풍 6년(1840-1856)에 이르기까지 12건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으로, 1건의 分合同에서 산주로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58)</sup> 그 중에서도 8건의 계약에서 논을, 세 건의 계약에서 황무지 및 산장을, 한 건의 계약에서 산장을 사들인 것을 볼 때 산장의 매매 및 육림보다는 논을 사들이고 경영하는데 더욱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分合同으로 자신 몫의 산장을 분할받고, 산장을 사들인 것을 볼 때, 당시 그는 농지 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산지 또한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손홍순은 함풍 6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토지와 산지를 매입했을 정도로 상당한 재력이었지만 위 탄원서가 최소한 함풍 7년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련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와 관부의 3만문에 달하는 연납 요구는 그의 자산에 적지 않은 부담 및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납 제도는 본래 청조의 재정 위기를 완화하고 군비를 충당하며 난민을 구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 그러나 가경연간 이래 부족해진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연납이 널리 확산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함풍 이후 청조는 바깥으로는 두 차례의 아편 전쟁으로 인한 거액의 배상금과 안으로는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연납제도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관료들의 이치가 점차 붕괴되어 백성들에게 과도한 연납을 남발하고 이렇게 얻은 기부금액 가운데 일부를 착복하여 사익을 채웠던 것으로 보인다.<sup>59)</sup> 이러한 관부의 과도한 연납은 그렇지 않아도 전란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에서 수확한 곡식과 가축 등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단련에 기부한 촌민들의 경제력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상술한 동치 원년 하영에서의 연납으로 인한 민심이반과 와해, 동치 2년 7월과 11월의 연납으로 인한 어려움 등은 당시 이 지역의 여러 촌락들이 연납요구에 시달렸음을 알려준다.<sup>60)</sup> 당연하게도 이러한 연납으로 인해 곤경에

---

가 형성됨을 언급하기도 했다. 於志嘉, 『明清時代軍戶의家族關係——衛所軍戶與原籍軍戶之間』,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74本第1分, 2003, pp.98-99.

58) 譚洪沛編, 『九寨侗族錦屏文書輯存』第7冊, 南京: 鳳凰出版社, 2019, pp.73-75-77-81-85-91-97-101-103; 譚洪沛編, 『九寨侗族錦屏文書輯存』第8冊, 南京: 鳳凰出版社, 2019, pp.23-25-27-29.

59) 당시 민간에서는 주로 향신의 연납, 상인의 연납 및 세금, 그리고 토지세 등을 통해 단련의 경비를 조달했다. 米鎮波, 『論咸豐朝地方團練的經濟來源及影響』, 『歷史教學』, 1986(12), pp.4-7. 이에 대해서는 梁巖冰·劉蓉, 『清代的捐納制度』, 『歷史教學』, 1996(9), p.50; 李婷婷, 『清朝中後期捐納制度的嬗變及影響』,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5(4), p.80 참조. 이러한 함풍연간 이후 연납제의 붕괴상에 대해 許大齡은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사람들은 연납제도가 함풍과 동치연간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한 것이 없지 않다.” 許大齡, 『清代捐納制度』, 北京: 燕京大學出版社, 1950, p.147.

60) 當是時, 官難, 民難, 地方團首皆難矣. 姜海閣·姜元卿著; 王宗勳點校, 『三營記』, 『貴州檔案史料』, 2001(1-

처한 것은 군호에 국한되지 않았다.

契4) 갖추어 아뢰는 백성, 여평부에 속한 平鰲寨의 姜東盛이며 성에서 120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여 은혜로우신 황상의 은혜를 바라는 일. 상부에서 은덕을 베푸시어 가난한 백성에게 연납을 면제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에 엎드려 절하나이다. 예의를 숭상하고 풍속을 교화하여 마을에 어진 이들이 살게 되었고, 이름을 날려 양친의 공을 드러내었으며 황은을 칭송하여 조상의 이름을 빛내게 했습니다. 그 은혜가 지극히 두텁고 예의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거스르겠습니까. 그러나 변두리에 살다보니 돈과 곡식이 빈약하고 산은 척박하며 논밭은 적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胡憲(胡林翼)께서 譙樓를 짓는데 冉委員이 곡식을 연납하라 하니 이는 고통 중의 이미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고통도 아닙니다. 함풍 6년(1856) 이래 사방이 혼란하므로 식량을 징발하여 방비에 대비하였으며 비용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府에서는 營畝를 고시하여 3:7 비율로 기부하도록 했고, 저 자신도 부족한데 먼저 남을 넉넉히 하였으니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비록 아직 40-50담을 생산하는 논이 남아있지만 몇 명의 노인과 아이들이 이것으로 먹고 쓰며, 누차 적을 막는데 보탠 비용 또한 이곳에서 나왔으며, 더욱이 이것으로 공명을 연납하였으니, 이는 고통 중의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조차도 고통이 아닙니다. 생각건대 기르고 가르침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에게 공손한 것이 우선입니다. 이전부터 목숨을 바쳐 고통을 처리하면서 조금이나마 불타 죽는 것을 면하여 다행히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효심이 있었기에 지금 생업을 팔아 몸을 영예롭게 하였는데 진실로 일거일동을 지탱하기 어렵지만, 차마 노인과 아이가 추위와 굶주림에 처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부의 뜻을 어긴다면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 마을에서 갖추어 아뢰고 간절히 위원을 청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체포되어 관아로 압송되면 노모께서는 아들을 원망하고, 어린 자식은 아비를 원망하여 연납조차 할 것이 없는데 어찌 속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고통 중에 고통을 받는 것이며 더욱 고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통이 아닙니다. 설령 노모와 어린 자식이 기한 내에 은량을 내어 속전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면, 하물며 저와 같은 자는 여전히 연납해야 하고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자들 또한 텅 비어 있으니 (가산을) 처분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한 내에 내지 못하고 두 번째 기한 내 내지 못하고 세 번째 기한 내 다시 내지 못하니 위에서 석방하고자 해도 아래에서는 속전할 방법이 없어, 죽더라도 구해내지 못하여 노모와 자식은 원망하며 죽을 것이니 이는 고통 중의 진정한 고통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애절하고 구슬프게 靑天大老翁께 충효를 마음에 품고 간청하니, 긍휼히 여겨 주시어 이러한 연납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 연납하기 어려운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어 고통 중의 고통을 면할 수 있다면 은혜로우신 상부의 은혜를 두루 입어 영원히 잊지 않

---

2), p.83.

을 것입니다.

동치 년 월 일

갖추어 아뢰옵니다.<sup>61)</sup>

契4)는 동치 연간에 평오채에서 작성된 탄원서이다. 본래 姜東盛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산이 많고 논밭이 적어 생산량이 한정적이지만, 호림익이 여평부 지부로 있던 시기(1850-1853)에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 시설을 짓는 데 곡식을 연납했다. 이후 함풍 6년에 묘족 봉기군이 쳐들어오자 그는 자신의 논에서 생산된 곡물 뿐 아니라 남은 논밭에서 수확한 곡물도 적의 공격에 방비하고 공명을 연납하는데 상당수 소모했다. 이러한 빈번한 연납으로 인해 그의 집안에 식량이 점점 줄어들어 노인과 아이들이 굶주리게 되었고, 이에 그는 관부에 탄원서를 작성해 현재 자신이 연납을 할 여력이 없음을 하소연하면서 만약 관아에 붙잡혀간다면 연납도 속전도 낼 만한 여력이 없음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자신 뿐 아니라 촌채 내 여러 사람들 역시 연납으로 인해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가산을 팔고 돈을 빌려도 관부가 요구하는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이들의 가족 또한 속전이 없어 결국 감옥에서 죽게되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있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자신의 곤궁한 상황을 하소연하고 지부에게 연납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청원하면서 내용을 끝마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시 이 지역 일대의 군호 뿐 아니라 민호 역시 연납으로 인한 고충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해당 탄원서의 정확한 작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삼영기』에 따르면 동치 2년 7월과 11월 관부에서 두 차례 돈 받고 관직을 매매(開捐)<sup>62)</sup>하였음을 감안하면 해당 탄원서는 동치 2년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문건을 작성한 강동성과 契3)의 손흥순을 비교해보면 강동성의 토지 소출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강동성은

61) 具稟民, 黎平府屬平麓寨姜東盛. 距城一百二十裡. 爲苦中訴苦, 恩上邀恩事. 緣蒙上恩典, 委捐窮民, 恩錫朝頂. 崇禮義而俗化裡仁, 揚名顯親, 頌皇恩而榮宗耀祖. 其恩至渥, 禮宜遵照, 安敢聊違. 無如居屬邊隅, 錢糧非薄, 山枯田少, 進少出多. 胡憲(胡林翼)建譙樓, 冉委捐穀擔, 此苦中已苦矣, 然猶非苦也. 慨自咸豐六年以來, 四境匱匱, 籌糧防堵, 助資花費. 兼之府示營令, 三七捐抽, 未足於己, 先厚於人, 不堪其苦. 雖然猶存谷田四五十擔, 則數口老幼, 食者於斯, 用者於斯, 屢資堵禦者亦於斯, 更於斯而捐功名, 是則苦中尤苦矣, 然猶非苦也. 竊思有養有教, 孝悌爲先. 自久舍生苦辦, 稍獲免燒殺, 幸得安全矣. 幼以聊存孝心, 至今賣業榮身, 誠難支俯仰, 不忍凍餒老幼. 而如違上意, 苦不堪言. 嗚呼, 在鄉具稟, 懇乞委員, 未獲賞准. 更拘軀赴府, 則老母痛子, 幼子痛父, 無出可捐, 安出可贖? 此苦中受苦, 而尤加苦矣, 然猶非苦也. 設而老母幼子答限銀兩, 以贖民免陷縲紲, 況如民者猶捐, 高民者亦如洗, 售賣借貸難支. 一限不出, 再限不出, 三限更不出, 則上欲違而釋, 下沒法可贖, 無救身亡, 痛斃老幼, 此苦中眞苦, 殆莫勝言之苦矣. 苦極無措, 只得苦中訴苦, 哀哀稟乞青天大老爺臺前, 忠孝居心, 賞施恤憫, 開此恩上不捐之恩, 免此苦中難捐之苦, 得免苦中之苦, 均沾恩上之恩, 頂祝不朽矣. 同治年月日 具稟. 唐立·楊有賡·武內房司主編, 『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彙編(1736-1950年)』第3卷史料篇, 東京: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2003, F-0035.

62) 각주 51번 참조

식량 생산보다는 매매 활동, 그 중에서도 삼나무의 벌목과 매매에 더 주력했던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실제로 『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彙編』에는 강동성에 대한 기록이 다수 남아있는데, 그는道光 24년(1844)부터 동치 9년까지 22차례 산장 및 삼목을 구매하였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산지를 매입했고,<sup>63)</sup> 이후 함풍 2년·6년·동치 2년·광서 2년(1876)에도 모두 네 차례 임업조건계약을 체결하여 재수에게 산림경영을 위탁했을 정도로<sup>64)</sup> 산장의 매입과 관리에 지속적인 공을 들였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 탄원서에서 강동성이 자신의 처지가 매우 궁핍함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함풍 11년에서 동치 9년 사이(1861-1870)에 그는 총 10번에 걸쳐 다른 산장을 구매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 자신의 산장을 타인에게 매도한 계약문서 또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당시 강동성의 상황이 그가 탄원서에서 강조한 만큼 궁핍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전란으로 인해 당시 민간사회 전반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던 상황 속에서도 몇몇 촌락 엘리트층은 꾸준히 자산을 매입 및 축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정철웅은 2019년 연구에서 청수강 하류 남안에 위치한 加池寨의 姜恩瑞와 姜獻義 등의 인물이 전란기 및 전란 이후에도 각자 백여 차례 자산을 매입하고 있었음을 밝혀낸 바 있고<sup>65)</sup> 2022년 연구에서는 林星寨의 彭德照·彭高祥이 전란 이후 지속적으로 자산을 매입하였음을 언급하기도 했다.<sup>66)</sup> 이처럼 몇몇 촌락 엘리트 층은 전란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이용하여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촌락 내 상류층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실제로 전란기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을 보유한 중·소자영농 등의 중산층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상술한 손흥순의 사례만 보아도 함풍 7년 이후로는 자산의 매입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탄원서에도 스스로 부유하지 않음에도 단련에 기부했음을 언급했던 만큼, 전란기 단련과 관부에 대한 자산 기부는 촌 내 중산층의 감소 및 빈부격차의 확대 등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엘리트 층 역시 중산층에 비해 타격이 덜할 뿐 자산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을 뿐 아니라, 각 촌락의 여론을 대표했던 만큼 촌락 내 촌민 전반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었다. 강동성이 탄원서에서 연남을 면해달라고 한 것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자 한 것도 있었지만 촌락의 엘리트층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63) 唐立·楊有廣·武內房司主編, 『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彙編(1736-1950年)』第1卷史料篇, 東京: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2001, A-0199·0201·0202·0203·0204·0202·208·209·210·211·215·216·217·218·219·221·222·224·226·227·228·234.

64) 唐立·楊有廣·武內房司主編, 『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彙編(1736-1950年)』第2卷史料篇, 東京: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2002, C-0062·0063·0066·0069.

65) 정철웅, 「清代 錦屏縣 加池寨의 經濟的 有力層과 少數民族 社會 — 『清水江文書』의 加池寨 斷賣 文書を 중심으로 —(1)」, 『明清史研究』第52輯, 2019, p.389.

66) 정철웅, 「清代 平略寨와 平秋寨의 界址 분쟁과 清水江 中·상류 구역의 林業社會」, 『明清史研究』第57輯, 2022, pp.23-25.

그 외에도 강동성의 자산매도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관부의 연납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상술한 두 탄원서는 당시 관부의 강요에 가까운 연납 요구가 민간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을 알려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契3)과 契4)의 소장에서 원고인 손흥순과 강동성 모두 마을 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당시 관부에서 요구한 연납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들은 이미 자산 가운데 상당량을 단련과 같은 군사 조직에 기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아들들을 단련에 보내거나 공명첩을 구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부의 지속적인 연납요구는 이 지역 일대 민간사회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이들은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위협을 무릅쓰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관부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관부의 무분별한 연납징수는 지역사회의 민심이 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비록 전란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 형성된 抽田 및 연납제도가 청수강하류 남안 지역 일대의 민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이는 봉기군에게 점령당한 북안 지역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특히 동치연간을 기점으로 평추채를 중심으로 한 북안 지역 일대가 점령당하면서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비록 관부로부터의 연납 등에는 시달리지 않았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은 토지를 버려두고 봉기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봉기군은 북안 지역 전역을 손에 넣지는 못했으며, 동치 6년 이후 봉기군이 점차 북안 지역에서 물러남에 따라 이 지역 또한 다시금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봉기군이 점령한 수년간 이 지역 일대는 황폐화되었으며, 실질자산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은 사람들의 심성에도 영향을 주어 전란 이후에도 자산을 둘러싼 분규가 발생하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契5) 먼저 계약을 감추고 후에 삼나무 산을 팔았으므로 사건을 기록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일. 저의 아버지와 삼촌 세 분은, 큰아버지 熊老回께서 九龍寨로 이주하셔서 挖坡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셨고 두 곳에 나무를 심어두었는데 대략 만 그루에 달했습니다. 땅의 이름은 弄星과 龍星이다. 땅 주인 吳老顯·吳光榮 등과 함께 합동문서를 작성하여, 토지와 심어둔 것(나무)을 각자 절반씩 소유하기로 분명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큰 아버지께서 후사가 없이 돌아가시자 저희 셋째 삼촌이 그곳에 가서 임종을 지키고 안장한 후에 합동의 契據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동치 원년에 이르러 비적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歸遂로 피난갔는데, 그곳의 蕭安全이 여러 차례 친족들을 돌보아주었기에 모든 계약서를 그에게 주어 보관하도록 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태평한 시기에 이르러 소안전에게 계약서를 돌려달라 요구하였으나, 그는 거짓으로 자신의 계거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우의가 친척에 이르렀으므로 저희 셋째 삼촌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이를 방치한 채 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셋째 삼촌 모두 돌아가시니 세 집안에는 오직 손자 한



명만 남아있고 또한 나이가 어린데 소안전이 합동문서를 도모하여 손에 넣고 어느 틈에 宋邦佐에게 盜賣하여 벌목하도록 하였으니 제가 이를 듣고 그곳에 가서 향단 吳顯宗·吳德成·吳再興 등에게 청하여 매수인에게 물어보니 과연 소안전에게서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향단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값을 치러 저지하고 소안전에게 시시비비를 논하였으나 그가 온갖 횡포를 부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버릴 수 없어 반드시 소안전에게 이치를 따져야 하나 그의 간사하고 교활하면 백 가지나 되어 그가 먼저 법으로 남을 제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자이고 저의 조카는 나이가 어리므로, 이에 먼저 사건을 기록합니다. 대인 앞에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건을 기록해주시어 혼란스런 다툼을 막아주신다면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건을 기록하여 아뢰는 사람 : 백성, 조카 웅란수, 나이 47세

抱告 : 熊永全, 나이 20세

석인체에 거주하며 성에서 160리 떨어져 있습니다.

광서 6년 3월 13일 작성

비답: 기탁받은 문서는 누가 실수로 투매하였는가? 만약 사실이라면 법규를 어긴 것이니, 즉시 원본을 베껴 보내어 먼저 시비를 가리도록 하라.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단련에게 보고하여 범인을 잡아 군문으로 압송하라. 이를 근거로 처벌할 것이다.<sup>67)</sup>

契5)는 광서 6년(1880) 청수강 하류 북안에 위치한 石引寨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해당 소장을 작성한 熊蘭秀는 여성으로 본래 첫째인 큰아버지·둘째인 자신의 아버지·셋째 삼촌과 함께 석인체에 살고 있었다. 그 중 큰아버지인 熊老回가 九龍寨(현 劍河縣 九龍村)로 이주하여 머물면서 그곳의 지주인 吳老顯·吳光榮과 계약을 맺어 토지와 심은 나무를 각자 반씩 점하기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큰 아버지가 후사 없이 죽게 되자 셋째 삼촌이 가서 장례를 치르고 계약서를 가지고 석인체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동치 원년, 봉기군이 북안 일대를 침범하자 이들 가족은 모두 강을 건너 남안에 위치한 歸濠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그때 그곳에 있던 蕭安全이 자신의 친척을 돌보아주었으므로 셋째 삼촌이 일체의 계약문서를 그에게 주어 보관하도록 했는데, 전란이 종식되면서 셋째 삼촌이 소안전에게 계약문서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소안전은 거짓으로 계약문서를 잃어버

67) 爲先購契約, 後賣杉山, 稟懇存案事. 緣氏父·叔三人, 大伯熊老回移居九龍寨, 住坐挖坡生理, 栽有木二塊, 約木將近萬株. 土名弄星·龍星. 有與土主吳老顯·吳光榮等公共立有合同, 載明土·栽各半. 大伯無嗣臨終, 趕氏三叔到彼, 俟終安葬, 攜帶合同契據回裡. 至同治元年, 因遭匪叛逃歸濠, 有與彼處蕭安全迭眷至親, 故將一切文契交與安全收管, 歸家照料. 至太平時, 向安全追取約契, 詭稱連伊契據一概(概)失落等語. 誼屬至親, 氏叔信爲實語, 置勿論. 嗣三叔已死, 三家惟有孤孫一脈, 尙屬年幼, 遭安全謀得合同到手, 不知何日盜賣與宋邦佐砍伐, 待氏聞知, 往彼經請鄉團吳顯宗·吳德成·吳再興等向買主跟問, 果稱向蕭安全得買等語, 有鄉團可質. 只得□(將)價阻止, 轉(將)向安全理講, 一味橫蠻似此. 父萊難丟, 必向安全論理, 伊之奸詭百出, 防伊先法制人, 氏屬女流, 氏侄年幼, 爲此預爲存案台前作主, 姑准存案, 以杜混爭施行, 頂祝不朽. 具存稟: 民·侄熊蘭秀, 年四十七歲, 抱告: 熊永全, 年廿歲, 住石引, 距城一百六十裡. 光緒陸年三月拾三日具批: 受寄文約誰失盜賣, 如果情直, 殊幹法紀, 著即抄批先向理. 倘有不遵, 報團扭送來轅, 以憑懲究. 譚洪沛編, 『九寨侗族錦屏文書輯存』第2冊, 南京: 鳳凰出版社, 2019, p.87.

렸다고 했다. 다만 당시 셋째 삼촌과 소안전의 사이가 매우 친하였으므로 셋째 삼촌은 그의 말을 진실이라 믿었는데, 이후 셋째 삼촌이 죽자 그의 아들만이 남았고, 그의 나이가 어렸으므로 소안전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훗날 계약서를 남에게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 다행히도 사촌 누나인 웅란수가 이 사실을 알고 구룡채의 향단에 청하여 매수인을 알아냈고, 그에게 물어보니 소안전에게 사들였음을 밝혔다. 이에 그에게 따졌으나 적반하장으로 나섰고, 이에 웅란수와 웅영전은 관부에 소장을 올려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청했다고 할 수 있다.

위 소장은 동치연간의 전란기 청수강하류 북안 일대의 민간사회에 끼친 영향과 그로 인한 쌍방의 분규정황을 제시한다. 우선 해당 소장은 당시 청수강 하류지역 민간사회의 재산권 전이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래 구룡채에 사는 큰아버지 옹노회가 지주와 계약을 통해 弄星과 龍星의 토지에 심어진 나무 가운데 절반의 몫을 얻었지만, 이후 옹노회가 급작스레 임종을 맞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후사가 없었으므로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웅란수의 아버지인 둘째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것이 순서였다. 그런데 해당 재산이 결국 셋째 삼촌에게 돌아간 것을 볼 때 큰아버지가 사망하실 당시 웅란수의 아버지 또한 이미 사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이렇게 셋째 삼촌에게 상속된 재산은 전란 이후 셋째 삼촌이 어느 시점에 사망하게 되면서 그의 아들인 웅영전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재산권 전이과정에 근거하면 이는 부계혈연에 근거한 종족원리에 따라 재산이 상속된 것으로, 정작 소장을 제출한 대표자 웅란수는 여성이기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녀는 셋째 삼촌의 아들인 웅영전의 사촌누나였고 웃 어른들이 계속해서 돌아가시던 상황에서 웅영전은 그와 가까우면서도 의지할 수 있는 친족인 웅란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웅란수가 웅영전을 대신하여 재산권 분쟁의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적인 자산 전이 과정에서 소안전이 개입하게 된다. 그는 옹씨 가족이 봉기군을 피해 귀주로 왔을 때 셋째 삼촌과 친분을 두터이 쌓았으며, 이러한 친분을 이용해 큰아버지가 체결했던 계약문서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셋째 삼촌이 소안전이 계거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신뢰할 정도로 소안전의 계거 확보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이는 정상적인 재산 전이가 아니었다. 만약 옹씨 가족의 동의 없이 소안전이 이 계거를 임의로 매매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투매행위에 속했다. 그러나 이후 셋째 삼촌이 죽고 그의 어린 아들이 재산권을 승계하는 시기를 틈타 해당 계거에 적합한 토지 및 나무에 대한 권리를 구룡채의 宋邦佐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웅란수가 구룡채의 향단의 협조 하에 매수인인 송방좌를 수소문할 수 있었고, 송방좌에게 소안전이 그에게 계거를 팔았음을 듣게 되었다. 당연히 이는 불법행위였기에 이러한 사실을 들며 소안전에게 시비를 논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소장을 올려 지현에게 탄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현은 해당 계거의 원본을 확보하여 시비를 가리도록 하고 만일 소안전

이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단련으로 하여금 압송해오도록 명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오랜 전란 가운데 적의 침입과 과도한 연납 등으로 인해 이 지역 일대의 민생이 전반적으로 곤궁해짐에 따라 자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던 상황을 종종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청수강 하류의 남·북안을 가리지 않았다. 일례로 북안의 석인채에 위치한 勇價山은 원래 劉喬安·劉玉宗·劉發祖의 토지였다. 그러나 劉開言과 劉開厚는 함풍 연간의 전란 중 많은 사람들이 용가산에 매장되었으며, 이곳에 여러 유씨 일족이 매장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용가산이 자신들의 묘산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양측 간에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소장을 올려 하소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sup>68)</sup> 또한 동치 원년 북안의 소강 연안에 위치한 峯拱寨(현 峯鞏村)이 봉기군에게 점령당하는 등 전화를 겪는 과정에서 오씨가족이 잠공채를 떠나 석인채로 이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용씨가족이 오씨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잠공채의 산지를 강제로 점거했고, 이로 인해 잠공채의 吳玉隆이 오씨가족을 대표하여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sup>69)</sup> 아울러 광서 8년(1882)에는 남안의 평오채에 거주하는 姜玉順<sup>70)</sup>이 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는 대표적인 전란기 인물로 호림익을 따라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副將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출세를 부러워한 나머지 姜作璧·姜作梅·姜作開 등이 강옥순 조부의 무덤이 길지임을 듣고는 자신들 부친의 시신을 강옥순 조부의 무덤 뒤편에 위치한 용맥에 투장하기도 했다.<sup>71)</sup> 이러한 개인의 욕망으로 인한 민간의 분쟁 사례는 장기간의 전란이 청수강 하류의 남안과 북안을 막론하고 당지의 민간사회에 정신적으로 심원한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민간사회가 가경·도광 연간 청수강 하류 일대의 목재무역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가 더 이상 영구적이지 않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본문에서는 전란의 장기간 지속이 청수강 하류 일대의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을 물질적·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동란 이래 이 지역의 지주들은 자산 가운데 적지 않은 양을 단련에 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부 및 단련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점차 늘어가는데 반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한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납은 민간사회의 자원을 일시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었지만, 당시 이 지역 일대의 촌민들은 이미 적지 않은 가산을 단련에 기부하여 추가적인 가계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관부에서 민간에 요구한 연납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일례로 契3)의 손홍순은 관부로부터 무려 3만 문에 달하는 연납을 강요받았으며, 契4)의 강동성 또한 상당한 규모의 삼나무 산장을 보유

68) 譚洪沛編, 『九寨侗族錦屏文書輯存』第3冊, 南京: 鳳凰出版社, 2019, p.196.

69) 譚洪沛編, 『九寨侗族錦屏文書輯存』第16冊, 南京: 鳳凰出版社, 2019, p.251.

70) 강옥순에 대해서는 姜海聞·姜元卿著; 王宗勳點校, 「三營記」, 『貴州檔案史料』, 2001(1-2), p.83·88 참조.

71) 張應強·王宗勳主編, 『清水江文書』第2輯第1冊,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p.236.

및 경영했음에도 관부의 연납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수 차례 호소하였다. 이처럼 관부의 일방적인 연납은 이 지역 일대의 민간사회에 상당한 반감을 초래했으며, 이러한 민심의 이반이 탄원서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有恒産者有恒心, 無恒産者無恒心”이라는 말처럼 장기간의 전란은 목재무역의 흥기라는 기반하에 쌓아 올린 민간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무너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정신적 풍요마저 파괴하는데 이르렀다. 북안 지역의 경우, 일시적으로 봉기군에게 점령당하면서 상당수의 경제적 기반이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소유를 입증할 계거를 이곳 저곳 옮기는 과정에서 관련된 민간 규분이 발생하기도 했다. 남안지역 또한 오랜 전란 가운데 민간경제가 침체되면서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향한 욕망이 강해졌으며, 이는 자산 뿐 아니라 풍수 문제를 포함한 각종 민간분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청수강하류 남북안 일대의 민간경제 악화는 사람들의 심성에도 영향을 주어 이전에 비해 人心不古한 사회적 풍조를 형성했으며, 촌민들이 촌락 내 자원이 가진 가치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이상으로 본문에서는 청수강문서를 활용하여 함동묘민봉기 시기, 그 중에서도 동치연간 청수강 하류 지역 민간사회의 동향을 재구성하는 한편 이러한 장기간의 전란이 민간사회에 끼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는 데 주력하였다. 함풍 5년 전란이 발발한 이래 청수강 하류에 위치한 여러 촌락들은 단련의 형성에 따른 전시경제체제를 형성하였으며, 봉기군이 물러난 이후에는 삼영이 외부로 파병을 나가는 등 당시 민간사회는 주변지역에 비해 수년간 안정된 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치 원년 봉기군이 청수강 하류 북안 일대를 점거하면서 청수강에서 양측의 군대가 대치하는 군사적 긴장상황이 펼쳐졌고 청수강 하류 일대의 여러 촌락은 다시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영은 봉기군과 수 차례 전투를 벌이며 남안 일대를 수호하는 한편 각 촌락에서는 사방에서 밀려 들어오는 난민들을 받아들여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작지를 마련하거나 단련으로 편입하여 봉기군에 맞서 싸울 병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전란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촌 내 단련 운영과 관련된 조항들이 만들어져 단련에 대한 통제와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촌내 엘리트들이 단련조직을 통제하는데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단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때문에 동치연간에는 촌내 단련의 경비확보 및 운용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다루어졌음에도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경비 전반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어느 정도는 촌민들의 기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전란 이후 관부의 재정이 계속해서 악화됨에 따라 관부에서는 각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납을 강요했고 이는 전란 이래 단련에 재정적 뒷받침을 해오던 촌민들의 경제력을 점차 약화시켰다. 심지어 몇몇 관리들은 이 틈을 타 촌민들에게 더 많은 연납을 거두고자 했으며 이러한 이치의 붕괴는 촌민들의 가계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처럼 장기간의 전란은 가정·도광연간에 축적된 지역사회의 물질적인 부를 소모시켰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심성에도 영향을 끼쳐 정신적인 풍요마저 무너뜨리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황은 촌민들에게 부와 명예를 향한 욕망을 자극하여 촌 내 각종 자산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수강 하류 지역의 민간사회는 함풍 5년부터 동치 12년(1855-1873)년에 이르는 18년간의 저항 끝에 마침내 봉기군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가혹했다. 전란으로 인해 청수강 하류 지역은 옹정연간 하도개통 이래 도광연간에 이르기까지 민간사회에 축적된 부의 상당수를 소모하였다. 비록 이후 광서연간에 이르러 목재무역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지만 목재 수급지역의 다변화 및 수입목재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인해 거래량은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sup>72)</sup> 심지어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았다. 단련으로 대표되는 향촌방위조직은 전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단련을 장악한 촌락 엘리트층은 이들의 군사력에 기반하여 촌락 내 치안유지·세금징수·민병징집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sup>73)</sup> 비록 黔西南 지역 홍의현의 유씨 가족이 단련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유력 가문이 되고 훗날 군벌로 성장한 것<sup>74)</sup>과 달리 이 지역의 엘리트층은 귀주성의 정치에 참여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작게는 개별 촌락·크게는 이 지역 단련의 집합체인 향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장기간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내부 결속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전통시기 향촌 사회의 결집추세는 혈연집단, 특히 건륭 연간 이래 점차 형성된 종족조직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통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족보를 편찬하며 宗祠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동족 간 일체감을 형성해 나갔다.<sup>75)</sup> 특히, 광서 연

72) 在數十年前，每歲可賣二三百萬金。今雖盜伐者多，亦可賣百餘萬。光緒『黎平府志』卷三下，「食貨志」，pp.129a-129b.

73) 필립 쿤(Philip A. Kuhn)은 당시 사천성 華陽縣의 단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실제로는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서 단련이 촌락 내 각종 행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Philip A. Kuhn, *Rebellion and its enemies in late imperial China - Militarization and social structure, 1796-186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p.212.

74) Edward A. McCord, "Local Military Power and Elite Formation: The Liu Family of Xingyi County, Guizhou", Joseph W. Esherick, Mary Backus Rankin, *Chinese Local Elites and Patterns of Domina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187.

75) 일례로 금병현과 북으로 접한 천주현 내 종사 건립 정황에 따르면 광서-민국연간에 무려 36곳의 종사가 건립 혹은 증건되었다. 吳才茂·李斌·龍澤江, 「祖蔭的張力：清代以降清水江下游天柱苗侗地區祠堂的修建」,

간에 이르러 특정 산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는 共山으로 불리는 소유 방식이 확산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公山 소유의 증가가 두드러졌다.<sup>76)</sup> 이는 청대 후기 촌락 사회가 족원 간 종족 내에서 진행되는 의례를 통해 문화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족원 간에 자산을 공유 및 공동으로 경영하며 상호 간 경제적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란으로 인한 촌락 내 엘리트층의 지속적인 자본축적과 중산층의 약화를 고려할 때, 전란 이후 이 지역에서의 종족조직 재건과 자산 형성은 기존 촌락 엘리트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향후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청대 후기 서남지역의 촌락사회를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처럼 함동묘민봉기는 청수강 하류 지역에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 새로운 역사적 흐름을 형성하기도 했다. 중화제국의 서남 변방에 위치한 묘·동족으로 구성된 족군 사회가 공식적으로 관부의 편에 서서 봉기군에 저항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내지화된 족군이자 제국의 신민을 자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봉기군을 물리친 이후에도 각 촌락마다 단련으로 불리는 향촌방위조직을 유지했는데, 이들 조직은 청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는 등 계속해서 청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각 촌락 내 종족조직은 무너진 사당을 증진함으로써 종족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족보상에 그들 자신의 조상들이 중국 내지에서 왔음을 기재함으로써 종족 내 각 구성원들에게 중국 내지와 연결고리를 형성하였다. 비록 청조가 신해혁명으로 인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검계군벌이 출현하면서 권력의 향방은 변화했지만, 청조와 마찬가지로 이들 군벌 역시 행정상의 간섭을 최소화한 채 세금을 거두어 세입을 보충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原生態民族文化學刊』, 2011(3), pp.43-44.

76) 이승수, 「清代 貴州省 錦屏縣 清水江流域 소수민족사회의 共山연구 — 『清水江文書』의 加池寨 共山기재문서를 중심으로 —」, 『明清史研究』第57輯, 2022, pp.87-89.

## 參考文獻

- 『清實錄』，北京：中華書局，1987。
- 凌惕安撰，『咸同貴州軍事史』，臺北：文海出版社，1967。
- 譚洪沛編，『九寨侗族錦屏文書輯存』第2·3·7·8·16冊，南京：鳳凰出版社，2019。
- 張應強·王宗勳主編，『錦屏文書』第1輯第3冊，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20。
- 張應強·王宗勳主編，『清水江文書』第2輯第1冊，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9。
- 姜海聞·姜元卿著，王宗勳點校，「三營記」，『貴州檔案史料』，2001(1-2)。
- 羅文彬·王秉恩編纂，貴州大學歷史系中國近代史教研室點校，『平黔紀略』，貴陽：貴州人民出版社，1988。
- 余渭等修撰，光緒『黎平府志』，『中國地方誌集成·貴州府縣誌輯』第17冊，據光緒十八年黎平府志局刻本，成都：巴蜀書社，2006。
- 唐立·楊有廣·武內房司主編，『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彙編(1736-1950年)』第1卷史料篇，東京：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2001。
- 唐立·楊有廣·武內房司主編，『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彙編(1736-1950年)』第2卷史料篇，東京：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2002。
- 唐立·楊有廣·武內房司主編，『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彙編(1736-1950年)』第3卷史料篇，東京：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2003。
- 唐立·楊有廣·武內房司主編，『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彙編(1736-1950年)』第3卷研究篇，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2003。
- 貴州省編輯組編，『侗族社會歷史調查』，貴陽：貴州民族出版社，1988。
- 高其才·王奎主編，『錦屏文書與法文化研究』，北京：中國政法大學出版社，2017。
- 高文德主編，『中國民族史人物辭典』，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
- 馬少僑，『清代苗民起義』，武漢：湖北人民出版社，1956。
- 張應強，『木材之流動——清代清水江下游地區的市場、權力與社會』，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2006。
- 趙德馨主編，『中國經濟史大辭典』，武漢：崇文書局，2022。
- 和龔·張山主編，『中國民族歷史與文化』，北京：中央民族學院出版社，1988。
- 許大齡，『清代捐納制度』，北京：燕京大學出版社，1950。
- Joseph W. Esherick, Mary Backus Rankin, *Chinese Local Elites and Patterns of Domina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hilip A. Kuhn, *Rebellion and its enemies in late imperial China - Militarization and social structure, 1796-186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Robert D. Jenks, *Insurgency and Social Disorder in Guizhou: The "Miao" Rebellion, 1854-18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顧誠,『談明代的衛籍』,『北京師範大學學報(社科版)』,1989(5).

郭必勛,「咸同年間貴州各族農民反清大起義的根源」,『黔南民族師專學報』,2000(1).

唐智燕,「清水江文書中特殊計量單位詞考源」,『原生態民族文化學刊』,2018(4).

馬少僑,「太平天國革命時期貴州的苗民起義」,『歷史教學』,1955(4).

武內房司,「清代清水江流域の木材交易と在地少数民族商人」,『學習院史學』第35號,1997.

武內房司,「清末苗族反亂と青蓮教」,『海南史學』26号,1988.

武內房司,「太平天国期の苗族反乱について~貴州東南部苗族地区を中心に」,『史潮』新12号,1982.

米鎮波,『論咸豐朝地方團練的經濟來源及影響』,『歷史教學』,1986(12).

徐慶堅,「太平天國時代貴州苗民起義」,『史學月刊』,1959(5)

徐慶堅,「號軍——太平天國時代貴州各族人民起義之一」,『史學月刊』,1957(5).

楊德芳·翁家烈,「關於太平天國革命時期貴州各族人民起義的幾個問題」,『貴州文史叢刊』,1981(1).

楊進銓,「侗族款的名稱」,『民族論壇』,1990(2).

楊進銓,「再談侗族款的名稱——『「侗款」的“款”字探源』質疑」,『民族論壇』,1993(1).

於志嘉,『明清時代軍戶的家族關係——衛所軍戶與原籍軍戶之間』,『“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74本第1分,2003.

吳才茂,「明代衛所武官後裔的身分變遷與村落形成—以銅鼓衛劉氏指揮使爲例」,『明代研究(臺北)』第29期,2017.

吳才茂·李斌·龍澤江,「祖蔭的張力:清代以降清水江下游天柱苗侗地區祠堂的修建」,『原生態民族文化學刊』,2011(3).

龍澤江·譚洪沛·吳小平,「清水江文書所見清代貴州苗侗地區的田糧計量單位考」,『農業考古』,2012(4).

李龍潛,『明代軍戶制度淺論』,『北京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1982(1).

張山,「論咸同貴州各族農民起義期間之清方政略」,『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9(6).

張山,「論太平天國時期貴州各族農民起義失敗的歷史教訓」,『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8(1).



- 張山, 「太平天國時期貴州團練問題初探」, 『廣西民族研究』, 1988(3).
- 張山, 「咸同貴州各族農民起義期間清方內部矛盾述論」,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0(4).
- 張習琴, 「清代貴州團練與地方政治」, 『貴州文史叢刊』, 2016(4).
- 趙宏章, 「貴州咸同軍事時期清政府的“善後”政策」, 『貴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1(2).
- 趙宏章, 「貴州咸同大起義與貴州地方團練勢力的形成」, 『貴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5(1).
- 曹維瓊, 「論太平天國時期貴州各族人民起義的特點」, 『貴州教育學院學報』, 1985(1).
- 何長鳳, 「粗論咸同貴州各族農民起義」, 『貴州文史叢刊』, 1984(2).
- 何長鳳, 「咸同年間貴州農民起義的特點」, 『貴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2(2).
- 胡思庸, 「太平天國革命時期貴州的苗教大起義」, 『史學月刊』, 1954(8).
- 胡思庸, 「太平天國革命時期貴州的苗教大起義(續完)」, 『史學月刊』, 1954(9).
- 侯哲安·翁家烈·楊有耕, 「太平天國革命時期的貴州各族農民大起義」, 『民族研究』, 1980(1).
- 김홍길, 「清代 湖南西部 苗亂의 終熄」, 『東洋史學研究』第157輯, 2021.
- 이승수, 「清代 貴州省 錦屏縣 清水江流域 소수민족사회의 共山연구 — 『清水江文書』의 加池寨 共山기재문서를 중심으로 —」, 『明清史研究』第57輯, 2022.
- 정지호, 「청대 검동남(黔東南) 지역의 개토귀류(改土歸流)와 묘족(苗族)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58호, 2017.
- 정철웅, 「清代 錦屏縣 加池寨의 經濟的 有力層과 少數民族 社會 — 『清水江文書』의 加池寨 斷賣 文書を 중심으로 —(1)」, 『明清史研究』第52輯, 2019.

## 5.4전야의 공리와 강권

###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 진독수의 서양관을 중심으로-

이한결

차례

1. 들어가며
2.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서양관
3.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의 서양관
4. 나가며

#### 1. 들어가며

1918년 11월에 4년여의 기간 동안 치러진 제1차 세계대전이 협상국의 승전으로 끝났을 때, 중국에서는 승전국의 진영에 속해 참전한 중국의 장래가 ‘공리’에 입각한 희망적인 것이리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마침 중화민국 내부의 정치적 소요도 약간의 소강상태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번 전승이 ‘강권’에 대한 승리라는 인식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전쟁의 대세가 정해질 무렵부터 중국에서는 전후에 관한 전망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며, 국제사회의 보조를 맞추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전후 세계에 대한 전망을 선명하게 언어화한 것은 “독일의 패전 이후 ‘공리가 강권에 승리했다’는 것이 사람들의 말버릇이 되었다”고 말한 진독수(陳獨秀)였다. 그는 전쟁이 개시된 지 일 년이 지난 무렵부터, 상해에서 『청년잡지』(1916년부터 『신청년』으로 개제)를 창간했고, 해당 잡지를 통해 중국이 서양문명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윤리, 문학, 과학 등의 여러 방면에서 서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중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반대여론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참전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던 그는, 종전 직후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논의를 전개했다. 또한, 종전 직후의 시기에는 『신청년』에서 충분히 다루어내지는 못하는 정치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매주평론』을 창간하여 언론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파리강화회의에서 산동문제가 다루어지는 추이를 보며 승전국이 체현했을 터인 ‘공리’의 행방을 알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1919년 5월 4일을 거친 이후에는 “강권만을 중히 여기고, 공리를 중히 여기지 않는” 세계에 있

어서, 중국인은 “실력이 공리를 옹호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함을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 파리강화회의에서 산동문제가 처리된 방식은, 진독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국인들이 지냈던 ‘6개월의 낙관’을 그치게 한 것이었다.<sup>77)</sup> 한편, 진독수의 주장이 역전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신청년』에서 ‘덕선생(德莫克拉西, Democracy)과 새선생(賽因斯, Science)’으로 대표되는 서양화 추구의 경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sup>78)</sup>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진독수의 ‘공리와 강권’의 관계에 대한 주장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바뀌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실망이 작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잡지 『신청년』을 통해 전면적인 서양화의 필요성을 주창해온 진독수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독수가 중국 근대사에서 주요한 인물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신문화운동의 기수, 5·4운동의 총사령관, 중국 공산당 창당의 주역 등, 20세기 중국사의 주요 사건들의 중심 곳곳에 그의 족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러한 진독수에 대한 연구의 축적은 국내외로 매우 많다. 국내의 연구는 주로 진독수의 초기 활동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의 진독수에 관한 분석과 관련하여 진독수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민주’라는 속성에 주목하는 연구, 애국주의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동서문화논쟁의 시기 『신청년』의 활동을 추적하는 연구들에서도 진독수는 주요인물로 다루어진다. 진독수의 논의에서 나타난 ‘민주’에 관한 문제의식은, 5·4운동 이후의 시기의 그의 논의와 중첩되며, 191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서 서양문화를 표상하는 주요한 개념임은 분명하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에서의 분석을 염두에 두면서, 민주라는 문제의식이 첨예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진독수의 논의를 주로 그의 서양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공리’와 ‘강권’이라는 개념은 주요한 시사점으로 작용한다.

## 2. 1차 세계대전 시기의 서양관

### 1) 유일한 문명으로서의 서양

77) ‘공리에 의한 승리’라는 분위기가 중국사회에서 나타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부터의 일이었다. 중국에서는 종전 직후의 시기에 국제정치에서의 새로운 조류가 중국 국내의 정치문제도 해결하는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이 기대가 짧은 기간 동안 좌절 된 것이, 중국의 청년 지식인들의 급진화를 촉진시켰다는 분석이 있다. 羅志田, 「六個月樂觀」의幻滅: 五四前夕士人心態與政治, 『歷史研究』 2006年 4期.

78) 『청년잡지』의 창간 이래로 진독수의 논의에서 ‘민주’와 ‘과학’의 중요성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두 주제를 ‘선생’으로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직접적으로 그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의 일이었다. 陳獨秀, 「『新青年』罪案之答辯書」, 『新青年』 6卷1號, 1919年 1月.

진독수는 청말에 과거시험의 비인간성에 의문을 느끼고, 변법운동의 영향을 받아 신식교육을 받은 뒤, 1901년부터 1915년까지 다섯 차례 일본에 방문하여 반청활동이나 잡지간행에 참여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출신 지역인 안휘에서, 안휘애국회의 조직, 백화문 신문 『안휘속화보(安徽俗話報)』의 창간, 반청조직 악왕회를 조직하는 등, 혁명파의 흐름에 가까운 활동을 했다. 다만, 배만(排滿) 민족주의에 위화감을 지니고 있었던 진독수는 동맹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sup>79)</sup> 중화민국 수립 이후에는 고향인 안휘의 군정부 도독부 고문·비서장을 맡아 약 1년 동안 안휘성의 행정 개혁 전반에 관여했다. 1913년에 제2혁명이 발발하였을 때, 진독수는 이에 호응하였지만, 제2혁명의 실패로 인해 상해로 피신했다. 상해에서 그는 정치활동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의 세계에 침잠하여 『자의유례(字義類例)』를 정리했다. 이후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피신했던 혁명파의 인사들이 일본에서 조직한 구사연구회에 참여했고, 장사쇠(章士釗)를 도와 『갑인(甲寅)』잡지의 편집에 참여했다. 해당 잡지에 그는 모두 세 편의 글을 실었는데, 신해혁명과 제2혁명을 거치며 겪은 일련의 혼란한 상황에 소모된 모습을 보였다.

국정이 격변하여, 작년과 오늘은 서로 5, 6세기의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정치나 교육과 같은 말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나는 원래 집의 문을 닫고 독서를 하며, 편집으로 생계를 세우고자 생각했지만, 최근의 출판계는 판로가 작년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붓을 놓고, 조용히 굶어 죽는 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국회가 해산된 이래로 백정(百政)이 모두 쇠퇴하고 실업자는 천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형벌과 가세(苛稅)가 농민과 상인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인민은, 관리나 병비(兵匪), 정탐(偵探)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발이 무거워 일어나지 못합니다. 살아갈 기회가 끊긴 것은 당인(黨人)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유일한 희망은 외국인에 의한 분할 뿐입니다.<sup>80)</sup>

『갑인』의 편집을 도와줄 것을 요청한 데에 대한 진독수의 편지를, 편집부 측에서 게재한 위의 글에서 느껴지는 피로감 내지는 정치에 대한 절망감은, 약 반년 뒤에 같은 잡지에 게재된 「애국심과 자각심」에서는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 1년 후부터 시작된 『신청년』에서의 진독수의 논의가 일관되게 걱정적인 어조로 중국의 개혁을 주장한 것과 달리, 이 글에서는 문제의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보고 겪은 중국의 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79) 横山宏章, 『陳獨秀の時代：「個性」の解放をめざし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9, 60-64쪽.

80) cc生, 「生機」, 『『甲寅』1卷2號, 1914年6月.』

지금의 중국은 인심이 흩어져있어서, 감정과 지식이 모두 말하기에 부족하다. 실로 정(情)이 없기에 공공의 안전과 위험을 내 한 몸의 기쁨과 슬픔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것을 애국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로 지(知)가 없기에 타인을 모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모른다. 이것을 자각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에게 애국심이 없으면 그 나라는 항상 멸망한다. 국민에게 자각심이 없으면 그 나라는 역시 위태롭다. 두 가지 모두라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sup>81)</sup>

진독수에게 있어서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의 증진을 도모하는 국가’였다. 그러한 기준에서 보았을 때, 중국은 조선, 일본, 터키, 멕시코 등과 마찬가지로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었다. 입헌국가라 하더라도 제국주의를 애국주의로 오해하여 그 군주와 재상에게 이용당하는 나라는 진독수가 상정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이지 못한 것이다. 또한, 혈기에 휩쓸려 장렬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것을 애국으로 오해하는 것은 나라를 그르칠(誤國) 위험으로 직결된다. 중국의 상황은, 애국심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성공했으나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적절한 지식이 없었던 탓에 공화정이 실패하고 있었다. 진독수는 “애국심은 이론의 구체화이고, 자각심은 사실의 분별이다. 이론의 구체화는 우리 국민도 말할 수 있겠으나, 사실의 분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가 적다.”라고 중국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스스로가 지식=자각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음을 말했다. 현상에 대한 분석에 그친 듯한 이 글에 대해, 동시대인으로 이후에 『신청년』에서의 활동과 중국 공산당에 이르기까지 긴 동반자로 활동한 이대조(李大釗)의 비판이 있었다.<sup>82)</sup> 연구자에 의해서도 문장의 곳곳에 있는 과한 표현을 비롯하여,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글로 여겨지기도 했다.<sup>83)</sup> 다만, 개인이 자각을 통해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통해, 일단 문제의 해결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함을 이야기 한 측면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나아가 이듬해 『청년잡지』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청년잡지』의 창간은, 1910년대 신문화운동의 기점으로 일컬어진다. 해당 잡지에 별도의 ‘발간사’는 없었으나 창간호의 첫머리에 실린 진독수의 논설인 「삼가 청년에게 고함」은, 중국의 ‘청년’에게 삶의 지침을 제시한 글로 유명하다. “청년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신선하고 활발한 세포

81) 獨秀, 「愛國心與自覺心」, 『甲寅』 1卷4號, 1914年11月.

82) 이대조의 논의의 요지는 진독수가 애국심과 자각심을 공히 강조하면서도, 정작 후자에 치중한 나머지 애국에 값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결국 무국이 낫다는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중국이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분투·노력을 통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大釗, 「厭世心與自覺心」, 『甲寅』 1卷8號, 1915年 8月.

83) 이병주, 「5·4 기 진독수의 애국주의- 이성적 내적 성찰의 애국관 -」, 『중국사연구』 9, 2000, 128-130쪽.

가 사람의 몸에 있는 것과 같다”며, 중국 사회의 올바른 신진대사를 위해 “신선하고 활발한 청년이, 자각하여 분투하는 것을 촉망할 뿐”임을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 진독수는 청년들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여섯 가지의 ‘도리(義)’를 이야기했다. 일종의 구호와도 같은 여섯 가지의 도리는 ‘1.자주적이어야 하며 노예적이지 않을 것, 2.진보적이어야 하며 보수적이지 않을 것, 3.진취적이어야 하며 퇴영적이지 않을 것, 4.세계적이어야 하며 쇠국적이지 않을 것, 5.실리적이어야 하며 허식적이지 않을 것, 6.과학적이어야 하며 상상적이지 않을 것’이었다.<sup>84)</sup>

각각의 도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진독수는 니체의 귀족도덕과 노예도덕, 베르그송의 창조진화론, 존 밀의 공리주의, 콩트의 실험철학, 오이켄의 생활의 문제에 대한 논의 등을 언급하였다. 중국의 청년들이 삶에서 지향해야 하는 바는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삶을 확립하는 것이며, 중국의 전통적인 사고와 생활방식은 이에 반대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신청년』의 지면에서 진독수가 가장 힘을 기울인 주제인 예교(禮敎)와 공교(孔敎)에 대한 비판은, 창간호의 첫머리에서는 전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의 전통적인 속성과 대비되는 서양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더 주력했다.

이는 같은 호에 게재한 「프랑스인과 근세문명」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진독수는 “근세문명이라고 칭해도 되는 것은 유럽인이 독점하고 있으며, 곧 서양문명이다. 또한 그것을 유럽문명이라고도 말한다.”고 명언한다. 또한, 그 유럽문명은 프랑스인이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프랑스 문명이란 곧 근대적인 서양문명의 요람인 점을 강조했다. 이는 근대문명의 특징 가운데 인심과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인권설, 진화론, 사회주의가 프랑스의 3대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와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sup>85)</sup> 그런데, 근대문명이라는 ‘은혜’를 제공한 프랑스는 이미 일 년 이상 유럽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앞서 「애국심과 자각심」에서의 분류에 따른다면 제국주의를 애국주의로 오해하고 있는 나라인 독일과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진독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이 근세의 삼대문명은 모두 프랑스인이 선물한 것으로 세계에 프랑스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암흑이 어느 정도였을지 알 수 없다. 이 문명을 창조한 은인은 마침 군국주의의 독일인과 싸우고 있는데, 그 승패는 아직 예상할 수 없다. 독일의 과학은 우리들이 존송하는 바로 이 역시 근대 문명의 산물에 속하지만, 그 특별한 문명이 인류에 대해 공적(功績)을 보여주었는지를 우리들은 아직 모른다.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이 프랑스인이 사랑하는 평등·자유·박애에 반대한다는

84) 陳獨秀, 「敬告青年」, 『青年雜誌』 1卷1號, 1915年 9月

85) 丘爲君, 「《新青年》論歐戰: 陳獨秀激進世界觀形成的考察」, 『廣東社會科學』 2015年 第6期, 106~107쪽.

것이다. 독일과 같은 문명은, 그 사람으로서의 이상은 결코 동양의 여러 나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문호대철학자·사회당원은 오로지 평등·자유·박애를 사랑하며 세상의 모범이 될 이가 한 사람도 없을 리가 있겠는가. 다만 그 다수의 이들의 심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평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국·강종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배척당하고, 프랑스인이 평등·박애·자유를 좋아하는 천성이 뿌리내려, 습속이 된 것과는 다른 것이다.<sup>86)</sup>

이에 덧붙여 진독수는 영국과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하는 의도를 알 수 없으나, 프랑스인이라면 “무기를 들고서 평등·박애·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가, 아마도 열 명 중 여덟, 아홉 명은 될 것”이며 설사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근대문명을 만들어낸 큰 은혜를 패배를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프랑스가 주도하여 만들어낸 서양문명은, 단순히 국가의 군사력으로 표상되는 ‘강권’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는 양무운동 이래로 중국이 서양을 도입·모방하는 데에 있어서 중시해왔던 군사력이 서양을 모방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양무운동의 실패를 인식하고 도입하기 시작한 정치제도(西法)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의 실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정치적 각성’과 ‘윤리적 각성’을 통해 이루고자 한 진독수는, 『청년잡지』를 통해서 ‘독립한 개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서양문명의 가장 주요한 속성임을 강조했다. 다만, 그 서양이 이미 미증유의 전쟁을 개시한 지 일년이 지났으며, 중국의 일각에서는 그러한 서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 2) ‘서양문명’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

「애국심과 자각심」에서 ‘제국주의를 애국주의로 오해하고 있는 나라’로 언급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인 독일에 대해, 『청년잡지』에서의 진독수는 다소 판단을 유보하는 평가하는 데에 그쳤다. 「삼가 청년에게 고함」에서 제시한 도리에 따라 보았을 때, 독일은 그러한 도리들을 형성하는 데에 크게 공헌한 바 있었던 것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청년잡지』의 논의가 중국사회의 ‘신진대사’를 기대하며 전개된 것인 만큼, 전쟁이라는 신진대사를 구성하고 있는 독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1916년을 맞이하며 독일에 대한 진독수의 평가는 다시 변화했다. 유럽의 전쟁이 세계규모로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유럽의 현재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86) 陳獨秀, 「法蘭西人與近世文明」, 『青年雜誌』 1卷1號, 1915年 9月

독일인은 청도(靑島)와 남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의 식민지를 잃은 것을 제외한다면, 작은 땅도 잃은 바가 없다. 서쪽으로는 영국과 프랑스를 막아내고, 멀리 국경을 떠나 동쪽으로는 러시아 국경에 들어서서 땅을 빼앗기를 천리(千里), 발칸으로 나서서는 세르비아를 멸망시켰다. (중략) 열국은 독일이 강성한 근본적인 원인을 성찰하여, 전력을 기울여 공업과 화학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보면, 1916년 유럽의 형세, 군사, 정치, 학술, 사상은, 새롭게 이번 전쟁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반드시 격변할 것이며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다. 유럽인은 1916년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sup>87)</sup>

진독수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독일의 승리를 예상한 무렵에, 원세개는 홍헌(洪憲)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며 제제를 부활시켰다. 청년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데에 집중하고, 정치에 대해 논하지 않을 것이라는 『청년잡지』의 방침도 작용했겠지만, 진독수는 원세개, 제제운동, 국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청년들이 서양문명에서 나타나는 진보의 추이에 주목하고, 그로부터 감화를 받아 중국에서의 변화에 기여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1916년」이 실린 1916년 2월호를 끝으로 6개월의 간격을 두고서 잡지명을 『신청년』으로 바꾼 이후부터, 『신청년』의 지면에는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주장이 나타난다. 강유위를 회장으로 둔 공교회가 공교를 국교화하고, 이를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운동을 추진하자, 자신들의 근본주장에 배치되는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논의가 다수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의 시기에도, “근세 서양의 도덕·정치는 자유·평등·독립의 이야기를 근본으로 삼으며 계급제도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이것이 동서문명의 일대 분수령이다”라며, 중국의 윤리사상의 핵심에 존재하는 ‘예교’가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있었다.<sup>88)</sup> 그러나 구체적인 비판의 대상이 등장한 이후 그 비판은 공격적인 성향마저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 비판 가운데 「헌법과 공교」에서는 서양의 법치국가의 개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공교가 지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서양의 이른바 법치국가라는 것의 최대의 정신은, 법률 앞에서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존비귀천의 구별은 절대로 없다는 점이다. 비록 군주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입헌의 정도를 삼으며, 민주공화국이라면 더욱 그러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공화국민의 교육은 마땅히 인권평등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와 함께 공자의 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 공자를 존중과 공자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양측 모두 명료한

87) 陳獨秀, 「一九一六年」, 『青年雜誌』 1卷6號, 1916年 2月.

88) 獨秀, 「吾人最後之覺悟」, 『青年雜誌』 1卷5號, 1916年 1月.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하며, 말을 모호하게 하면서 포폄(褒貶)과 훼예(毀譽)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sup>89)</sup>

설령 ‘군주국’이라 할지라도 서양의 국가에서 개인의 지위는 법률 앞에서 평등한 것임을 이야기한 것은, 진독수가 서양이라면 어떠한 정체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중국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가령 지금 아직도 폐관(閉關)시대여서 서양의 독립·평등의 인권설과 비교할 일이 없었다면, 누구도 공교의 잘못을 논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중화(吾華)는 천한 민족으로, 백인과는 달라서 억지로 서양을 흉내낼 수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으며, 나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도 입 밖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다만 명확하게 공화국민임을 자임하면서 서양 문명의 수입에 스스로 힘쓰는 이도, 공화정체나 서양문명에 절대적으로 상반하는, 준비를 나누고 귀천을 명확하게 하는 공교를 타기(唾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바이다. 의원이면서 공자의 도를 존송한다면, 그 차지하고 있는 지위는 특히 사려가 결여된 것이다. 법률이 ‘서인(庶人)은 논의하지 않는다’라면, 공교가 어찌 대의정체나 민선의원을 허락하겠는가. (중략) 헌법에 공자를 존송하는 조문이 있다면, 그 밖의 조문은 모두 폐기해야 하게 된다. 지금의 헌법은 유럽의 제도를 채용한 것으로, 유럽의 법제(法制)의 정신은 평등·인권을 기초로 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는 민국헌법 초안의 백여 조를 보았는데, 공자의 도에 저촉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었다. 어찌 이를 병립할 수 있겠는가.<sup>90)</sup>

일반적으로 진독수의 공교비판은 구사상·구윤리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비판만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체제를 운용하는 것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중국의 법이 공자의 도이며, 그것이 중국의 국가를 조직하고, 사회를 지배하여 그것으로 오늘날의 경쟁세계에서 생존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긴다면, 공화헌법을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여 년 이래의 변법유신, 유혈 혁명, 국회의 개설, 법률의 개정(민국이전에 시행된 대청률은 단 하나의 조문도 공자의 도가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정치와 교육은 하나도 남김없이 불필요한 것, 잘못된 것으로써 폐지하고, 낡은 방식을 묵수하여, 우리들의 자산과 노력을 낭비

89) 陳獨秀, 「一九一六年」, 『青年雜誌』 1卷6號, 1916年 2月.

90) 陳獨秀, 「憲法與孔教」, 『新青年』 2卷3號, 1916年 11月.

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중략) 만일 본분에 만족하지 않고, 서양식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서양식의 새로운 사회를 조직하여, 현재의 세계에서 적자로서 생존하고자 함부로 생각하다면, 근본문제는 서양식의 사회와 국가의 기초, 이른바 평등, 인권이라는 새로운 신앙을 수입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회, 국가, 신앙과 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각성과 용맹한 결심을 해야만 한다.<sup>91)</sup>

### 3.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의 서양관

#### 1) 중국의 참전과 서양관의 분리

제1차 세계대전의 장기화는 유럽의 각국 사회의 노동력 부족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중립국인 중국으로부터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1916년 중반 이후부터 종전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프랑스에서 약 14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했고, 다양한 장소와 분야에서 노동에 종사했다. 중국의 이러한 형태의 전쟁참여는, 해외로 노동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전쟁에 공헌하여 전후 강화회의에서 발언권을 획득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진독수는 중국의 참전에 대해 사상적인 측면으로부터도 접근하여 협상국 가입에 찬성했다.

이번 대독외교 문제는 국가존망의 문제로, 통상적인 외교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깨달아야 하는 바이다. 협상국에 가입할 것인지의 여부, 정부의 대독방침이 결정되기 이전에 중국의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이해·시비를 토론하는 데에 종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진행을 재촉해야 하는 것이며, 방관하여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sup>92)</sup>

진독수는 독일과의 외교는 ‘국가 존망의 문제’이며, 이는 중국인이 애국심과 능력, 품격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보았다. 그는 협상국 측에 가입한다면 중국이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국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바가 많은 것임을 기대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독수는 1916년부터 독일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하며, 때로는 그 분투를 상찬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독 외교」에서는 독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는 중국이 협상국에 가입해야 하

91) 陳獨秀, 「憲法與孔教」, 『新青年』 2卷3號, 1916年 11月.

92) 陳獨秀, 「對獨外交」, 『新青年』 3卷1號, 1917年 3月.

는 이유로 제시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백색 인종이 우리 민족을 보는 것은 마치 사람이 개와 말을 보는 것과 같다. 독일인은 그 협애(狹隘)한 애국심을 과도하게 써서 안중에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군다. 저 강대한 민족에게는 확실히 교만해도 될 만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약자이자 피정복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당연하게도 저 강자이자 정복자에게 천부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승인할 수 없으며, 힘을 다하여 저들과 항쟁해야 한다. 설령 싸우다가 패배하더라도, 벨기에나 세르비아와 같이 싸우지 않고 굴하여 인일함을 탐하면서 치욕을 달게 받아들이는 겁쟁이보다는, 그 민족의 영예와 국가의 인격은 훨씬 나은 것이다.<sup>93)</sup>

이번 대독외교에 대해, 만약 전국이 일치하여 일관되게 강경한 태도로 나설 수 있다면, 승패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적어도 공리에 복속하고 강권에 복속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정신을 다시금 세계에 내보일 수 있으며 (원세개 씨의 제제에 반대한 것이 첫 번째이다), 수백 년 이래의 굴욕적인 외교의 관례를 단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지극히 큰 대가를 치르겠으나, 얻는 것 또한 심히 많을 것이다.<sup>94)</sup>

협상국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중국 국가재정의 곤궁함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원조를 받을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 전쟁이 중국사회의 정체를 타파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대외전쟁을 통해 국내의 남북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독방침에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협상국 측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에 국가적인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반박했다.

몇 가지의 구체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중국과 이해관계가 없는 유럽의 전쟁에 참가하여 국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반대파의 주장에 대해, 진독수는 이는 현재의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도리어 국가 재정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열강의 세력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인데, 협상국 측에 가입하는 것은 이러한 세력균형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래 ‘균형’이라는 것은 이미 파괴되었으며, 유럽 본토와 달리 아시아(극동지역)에서는 유럽열강의 세력균형이 비교적 온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유럽열강의 세력균형이라는 것은 모두 협상국에 속하는 이들로 구성된 것이며, 독일·오스트

93) 陳獨秀, 「對獨外交」, 『新青年』 3卷1號, 1917年 3月.

94) 陳獨秀, 「對獨外交」, 『新青年』 3卷1號, 1917年 3月.

리아와 적대적 관계에 놓이더라도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1916년」에서 독일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을 때, 진독수의 논의는 ‘독일’이라는 나라보다는 독일로 표상되는 서양이 증명하는 진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대독외교에 이르러서 독일은 이제 비판받아야 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진독수의 서양에 대한 언설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서양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에 다시 변화를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가 서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국이 도달/추구해야 할 가치를 지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짙었고, 이에 따라 서양은 하나의 덩어리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어 중국의 참전 논의가 발생함에 따라, 공리와 강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서양을 다시 나누어야 했다.

## 2) 케틀러비

진독수의 논설 「케틀러비(克林德碑)」는 종전 직후의 시기, 진독수가 북경의 전승 축하 분위기에 가운데, 북경 시민들에 의해 케틀러비가 파괴되었다는 소식에 대한 감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의화단운동에 대한 평가, 중국의 서양인식의 수준이 낮은 문제 등까지 언급한다. 이 논설이 중요한 이유는, 전쟁이 진행된 기간에 그의 논설의 대부분은 서양문명을 윤리적·정치적 목표로 설정하여 그 선진성을 추종해야 함을 이야기 해왔는데, 이 논설에서는 중국 본위의 입장에서 서양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환성 가운데서도 제일로 기뻐하는 목소리는 ”잘 됐다, 잘 됐다. 경자년 이래로, 거국적으로 치욕을 받아온 저 ‘석두패방(石頭牌坊)’ - 즉 케틀러비를 일컫는다. 북경 사람들은 석두패방(石頭牌坊)이라고 통칭해왔다 -를 부숴했다고 하네“라는 것이었다. 나는 병으로 누워있었고, 문밖으로 나가고자 생각하지는 않았다. 첫째로는, 이번에 협상국이 독일에게 이겼지만, 우리 중국은 조금도 진력한 바가 없었기에, 뻔뻔하게 이 축하의 제전에 참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번 협상국의 승리는, 그 공을 모두 군사적인 것에 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협상국의 전승을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독일의 정치적 진보를 축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저 케틀러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에, 내게는 더욱 끝없는 감정이, 끝없는 우수가 생겨났다.<sup>95)</sup>

지금 독일의 민당(民黨)은 황제와 군국주의를 혁명하고자 하고 있으며, 협상국은 기세를 타서

95) 陳獨秀, 「克林德碑」, 『新青年』 5卷5號, 1918年 11月.

독일을 패배시켰다. 우리 중국인들도 기세에 타서 이 케틀러비를 때려 부셨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는 모양으로, 모두가 이 국치의 기념비가 부서진 것은 매우 통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 케틀러비를 부순 것은 실은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비는 의화권의 소동이 만들어낸 것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의화권이 또 다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또 각국의 연합군에게 우리 중화대국에 다시 한 번 조하하러 오게 해야 할기 때문이다. 그 때 세워질 석비는 아마도 한 군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지금 이 때에 황급히 이 케틀러비를 부순 것이 어찌 쓸데없는 일이 아니겠는가.<sup>96)</sup>

의화단이 다시금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한 이유로 진독수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도교. 중국의 구류(九流)의 도가와는 관계가 없는 중화국민의 원시사상으로, 우리 중화의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국민사상이다. 유가·공자의 '충효절의(忠孝節義)'의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선 정도와 비교하면, 그것보다도 깊게 들어서있다. 의화권은 모든 사회의 여러 미신, 사설(邪說)의 결정인 것.

둘째, 불교. 초물질적인 세계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이로 인해 물질세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승인한 것.

셋째, 공교. 공자가 신괴(神怪)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귀신을 절대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춘추』의 대의가 '존왕양이'에 있는 것과 의화권이 표방한 '부칭멸양'은 마찬가지로의 것이다.

넷째, 유·불·도의 삼교합일의 중국의 연극이 의화단을 만들어낸 원인. 연극 속의 여러 신들의 모습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었음.

다섯째, 새로운 학문을 적대시하면서 함부로 잘난 척 했던 수구당의 존재.

과거의 이 다섯 가지 원인에 의해, 의화단의 대란이 만들어진 것이며, 의화단의 대란으로 인해 국치의 케틀러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사실은, 내가 함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의 인과를 가지고서 장래를 추측하자면, 의화단을 제조해낸 다섯 가지의 원인은 현재에도 모두 여전히 옛날 그대로이다. 의화단의 명목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화단의 사상, 의화단의 사실은 온 나라에 가득 차 있어서, 이제 막 일어나려는 중으로,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장래에 의화단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 장래에 의화단이 다시 발생했을 때, 다시금 국치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장

96) 陳獨秀, 「克林德碑」, 『新青年』 5卷5號, 1918年 11月.

할 수 있을까?97)

정부당국의 인물은 목하 시세가 다가오는 바를 위해, 신학을 제창하자고 말하거나, 서양문화를 수입하자고 말하곤 하는데, 이는 겉으로만 서양인을 적당히 돌려보내기 위해 말하고 있을 뿐, (북경) 외교단이 자신의 지위를 승인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신학·서양문화와 절대적으로 상반하는 강상(綱常)과 명교(名教)가 가득 채워져 있으며, 서동(徐桐), 강의(剛毅) 등과 같은 류의 인물이지만, 또한 서동과 강의만큼 성실하지도 못하다. 그렇기에 예교(禮敎)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강기(綱紀)로 이야기를 마치는 것이다. 강기예교가 아니며 군신상하가 없는 서양문화가 어찌 그들에게 있어서 눈 안의 못이 아니겠는가?98)

현재 신파의 인물은 어떠한 사상·학문도 지니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어떻게든 공화와 과학의 방면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 전제와 미신을 대표하는 구인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 신인물은 반역에 다름 아니며, 이단의 사교일 뿐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들 반역·이단의 사교를 토벌·소멸해야만 비로소 강기(綱紀)를 숙정(肅正)하고 인심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에서 무술 이래로 정변이 일어난 근본원인인 것이다.99)

위에서 든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현재의 중국이 의화단을 제조하는 원인은 경자년 이전에 비교해도 결코 조금도 감소하지 않았으며, 장래의 결과는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우리 국민이 현재 및 장래에 국치의 기념비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의화단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화단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화단을 제조한 여러 원인을 완전하게 소멸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100)

### 3) 공리와 강권의 관계변화

독일의 패전 이후 “공리가 강권에 승리했다”는 것이 사람들의 말머릇이 되었다. 여러분은 무엇

97) 陳獨秀, 「克林德碑」, 『新青年』 5卷5號, 1918年 11月.

98) 陳獨秀, 「克林德碑」, 『新青年』 5卷5號, 1918年 11月.

99) 陳獨秀, 「克林德碑」, 『新青年』 5卷5號, 1918年 11月.

100) 陳獨秀, 「克林德碑」, 『新青年』 5卷5號, 1918年 11月.

이 공리이고, 무엇이 강권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평등과 자유에 적합한 것이 공리이다. 스스로의 무력에 기대어, 다른 이의 평등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강권이다. 독일은 학문이 뛰어나고 병력이 강한 것에 기대어 오로지 각국의 평등과 자유를 침해해 왔지만, 지금 크게 패배를 겪으며, 다소나마 공리를 아는 협상국이 승리했다. 이것을 “공리가 강권에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공리가 강권에 승리한” 결과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강권에 기대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결코 공리를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깨달았음에 틀림없다.

미국 대통령 윌슨의 몇 차례에 거친 연설은, 그 모두가 공명정대하며, 현재 세계의 첫째가는 선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이야기한 것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주의이다. 첫째로 각국이 강권을 써서 타국의 평등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허하지 않는다. 둘째로 각국의 정부가 강권을 써서 서민의 평등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허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주의는, 그야말로 공리를 중히 여기고 강권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기에 그를 세계에서 첫째가는 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매주평론』을 발행하는 취지도 ‘主張公理, 反對強權’의 여덟 글자에 입각하여, 이후로는 ‘강권이 공리에 승리하지 않는’ 것을 바랄 뿐이다. 인류만세, 본보(本報)만세.<sup>101)</sup>

협상국이 독일을 공격했을 때에 내건 기치는 ‘공리는 강권에 승리한다.’였다. 지금 해양의 자유의 문제, 국제연맹의 문제, 발칸 문제, 식민지 점령 문제는, 모두 5대 강국이 밀실에서 지휘하고 있다. 하물며 약소국의 권리문제, 군비축소문제, 민족자결문제에 이르러서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공리가 강권에게 승리했다는 가면이, 강권을 주장하는 독일인에 의해 벗겨지지 않기를 바란다.<sup>102)</sup>

어떤 이들은 손중산이 항상 이상적인 커다란 논의를 하므로, 그에게 손대포(大砲)라는 별명을 붙였다. 윌슨 대통령의 평화에 관한 14개조 연설은, 지금에 이르러서 대부분 실행이 불가능한 이상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도 위대포라 불러도 될 것이다.<sup>103)</sup>

이번 유럽대전에서 벨기에의 의협은 진정으로 모범적인 것으로 여기기에 충분하며, 희생한 정도도 적지 않았다. 지금 회의석상에서는 5대강국이 농단하고 있으며, 천신만고한 불쌍한 벨기

---

101) 隻眼[陳獨秀], 「發刊辭」, 『每週評論』第1號, 1918年 12月22日.

102) 隻眼[陳獨秀], 「揭開假面」, 『每週評論』第7號, 1919年 2月 2日.

103) 隻眼[陳獨秀], 「威大砲」, 『每週評論』第8號, 1919年 2月 9日.

에는 마침내 문외한이 되어 그 취급이 일본에조차 미치지 못한다. 물건대, 공리는 어디에 있는가. 과격과의 행위는 비록 옳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러시아와 독일의 양대 전제를 파괴한 공적을, 협상국은 완전하게 목살하고 있다. 다시금 물건대, 공리는 어디에 있는가. 독일황제가 패배하기 이전에 전쟁에 반대하여 마지막까지 굴하지 않았던 것은 리프크네히트의 일파뿐이었는데, 그 이전에 황제에게 부화뇌동했던 이들이, 지금은 거꾸로 리프크네히트를 핏박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았다. 다시금 물건대, 공리는 어디에 있는가.<sup>104)</sup>

#### 4. 나가며

진독수의 서양문명에 대한 관점은, 중국이 도달해야 할 지점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므로 진독수의 논의에서 서양은 항시적으로 선진적인 존재, 중국을 선도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 『신청년』의 초기에 있어서 그가 설명하는 서양문명의 중심에는 프랑스가 있었다. 인권, 진화론, 사회주의라는 세 가지 근대의 산물은, 진독수에게 있어서 독립한 개인을 양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도구들이었으며, 그것들의 발상지인 프랑스를 유럽을 선도하는 존재로 여겼다. 다만, 이러한 도구들을 갖추어 나가면서 이를 통해 개인의 확립을 하기 위해 ‘전면적인 서양화’가 필요함을 논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미 1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증유의 전쟁이 개시된 이후였다.

진독수는 『신청년』의 지면에서 일관되게 전쟁이라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거나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도리어 전쟁에서 서양의 진취성, 선진성을 간취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전쟁으로 인해 현실에서 분화되고 있는 ‘서양’을 통합된 형태로 묶어두고자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도달해야 할 지점으로 서양을 설정한 이상, 서양은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서 있으면서 기능하는 존재여야 했다. 진독수가 서양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은 느슨하게 상정되어있었고, 이는 도중에 바뀌기도 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협상국으로의 가입과 참전을 논하면서, 기존에는 서양의 진보를 체현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던 독일이 단숨에 적대국으로 상정된다. 또한, 독일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이 ‘공리’에 복속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리와 강권의 가운데 중국의 위치가 전자에 속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분화된 서양 가운데 향후 더 문명의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진영에 중국이 속할 것임을 이야기 한 것이었다. 종전 직후에 있어서도 진독수의 서양관은 유지가 되고 있었던 측면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문명의 기준을 몇 차례 바꾸어나갔다 해도, 중국내부의 상황과 국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해내지 못하는 측면이 점차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5·4운동이 일어난 이후인 1919년 5월 26일자의 『매주평

104) 隻眼[陳獨秀], 「公理何在」, 『每週評論』第8號, 1919年 2月 9日.



론』에 진독수가 쓴 「산동문제와 국민의 각오」라는 글은 이를 잘 보여준다. ‘대외·대내 양면에서 철저한 각성을’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이 논설에서 진독수는 “강권만을 중히 여기고, 공리를 중히 여기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 중국인은 “실력이 공리를 옹호한다.”와 “평민이 정부를 정복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함을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

- I. 머리말
- II. 실향과 실직 이후 언론 활동
- III. 항일 선전과 신장에서의 활동
- IV. 신장에서의 갈등과 숙청
- V. 맺음말

## I. 머리말

1930년대 들어 일제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무력 침략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감행하기에 앞서 중국 일부 지역에 괴뢰 정권을 세워 중국의 영토를 잠식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은 청나라 판도가 실질적으로 ‘과분(瓜分) 당한다’는 인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 활거한 군벌 통치기를 끝내고 난징 국민정부의 통치를 기대했던 중국 전체 인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을 뿐 아니라<sup>105)</sup> 직접적으로 동북 사람들에게 고향 상실과 경제적 파탄이라는 이중적 타격을 주었다.

두중위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향을 떠난 실향민이었다. 두중위안(杜重遠)은 본명이 두첸쉐(杜乾學)이며 1898년 평톈성 화이더현(懷德縣, 지금의 지린성 공주령시)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1917년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자오신 도자기 회사(肇新窯業公司)를 설립하고 운영했다. 그의 사업은 장쉐량(張學良)의 동북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였고, 만주사변 전까지 일본 도자기 사업을 능가할 정도 성장하여 ‘실업(實業)을 통한 구국’을 이

105) 1910년대 말부터 계속되어 온 배일(排日)·항일(抗日)·반일운동(反日運動)은 1931년 일본의 滿洲侵略에 의하여 더욱 격화되었다. 또한 국민정부의 부저항정책은 대일 타협 자세를 취한 것으로 비쳐 학생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도시 대중의 자연발생적인 항일구국운동이 발생했다. 특히 상하이의 항일운동은 일본상품의 매매금지, 일본 기업체와의 접촉금지, 상하이중국은행가협회의 일본인과의 거내단절(去來斷絶) 등은 일본의 경제활동을 중단시켜 중국내 일본의 상업 지위를 1위에서 5위로 끌어내렸다. 1931년 9월 27일 베이징에서는 만주를 상실한 동북인이 동북민중항일구국회를 결성하고 비밀리에 군사훈련반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12월에는 베이징, 천진, 한커우, 상하이 등의 각지 학생대표들이 난징에 집결해 정부의 대일 선전포고를 요구하는 대규모의 청원시위를 전개하였다(金庸閔, 「南京 國民政府의抗日政策 轉換의 背景-抗日 輿論의 推移를 中心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5~6쪽).

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106)</sup> 하지만 만주사변 이후 두중위안의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고, 실패와 실직을 동시에 경험해야 했다. 두중위안이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만주 밖에서의 활동이 있을 때부터였다. 그는 기업인에서 언론인으로 자신을 바꾸었다. 1934년 두중위안은 상하이에서 『신생(新生)』이라는 잡지를 창간하면서 언론 활동을 하였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신장에 들어가서 활동하였다.

두중위안의 다채로운 이력은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첫째 중일전쟁기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언론인이 자발적으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항일 선전을 하였다는 것,<sup>107)</sup> 둘째 두중위안이 만든 언론이 일제에 의해 압력을 받았고 그로 인해 옥살이했다는 것,<sup>108)</sup> 셋째 두중위안이 신장에 가서 활동하다 군벌 성스차이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것<sup>109)</sup> 등이다. 이 세 가지 이력은 1930년대 중국의 항일운동과 민족주의적 활동의 예시로 언급되었다. 두중위안은 애국주의적 인사라는 수식어로 설명되었으며, 그의 행적은 중국공산당의 혁명과 활동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sup>110)</sup> 두중위안은 “좌익 언론인” 또는 “애국 인사”로 묘사되었는데, 기존의 연구는 그의 생애를 민족 자본가, 애국 언론인, 무자비한 군벌의 희생자 등 각각 분절적으로 조명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독립적이고 실천적인 이상을 실현하려는 동기에 근거한 연속적이면서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중국공산당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없음에도 애국주의라는 이름 아래 그의 활동이 ‘좌익 활동’이라 뭉뚱그려진 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신장에 들어가게 된 동기와 그 배경을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록한 글을 통해서 정리하면 두중위안을 신장으로 초대한 성스차이의 의중과 더불어 신장 정치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불분명한 이유로 신장 군벌 성스차이에 의해서 살해당한 두중위안과 성스차이가 일으킨 ‘전변’ 과정에서의 중국공산당 탄압은 구분해야 할 필요성

106) 楊曉陶, 「杜重遠“實業救國”之路」, 『黨史縱橫』, 2014(11).

107) 楊曉陶, 「杜重遠“實業救國”之路」, 『黨史縱橫』, 2014(11); 黃衛東, 「實業救國的民主戰士杜重遠」, 『黨史縱橫』, 2012(07); 胡塵紅, 「杜重遠與景德鎮瓷業改革」, 南昌大學碩士學位論文, 2005; 黃繁·胡小紅, 「民國時期杜重遠景德鎮瓷業改革述論」, 『贛南師範學院學報』, 2010(04); 黃繁川, 「杜重遠與肇新窯業公司」, 『蘭台世界』, 1999(02); 齊丹丹·薛靜文, 「愛國窯業實業家杜重遠」, 『蘭台內外』, 2024(06).

108) 徐明, 「杜重遠與《新生》周刊中的抗戰精神」; 白曉菲, 「杜重遠的救國思想研究」, 西安石油大學 碩士學位論文, 2023; 周天度, 「杜重遠與30年代抗日救國運動」, 『抗日戰爭研究』, 1999(04); 魯麗娟·暖融, 「燭照千秋的人格魅力——試論杜重遠先生與青年」, 『徐州師範大學學報』, 2000(02).

109) 陳志平, 「試論愛國報人杜重遠與新疆的文化教育事業」, 『現代職業教育』, 2018(34); 白曉菲·劉輝, 「杜重遠的青年愛國主義教育觀及實踐」, 『現代商貿工業』, 2023, 44(03); 魯麗娟·暖融, 「燭照千秋的人格魅力——試論杜重遠先生與青年」, 『徐州師範大學學報』, 2000(02).

110) 馬彥強, 「杜重遠: 從實業家到愛國報人」, 『檔案』, 2003(01); 呂海洋, 「愛國救亡實業家——評張寶裕、楊美君、關繼廉著《杜重遠》」, 『佳木斯職業學院學報』, 2018(08); 徐建東, 「張學良與杜重遠的愛國友誼」, 『黨史文彙』, 2000(05).

이 있다. 두중위안의 다채로운 삶의 궤적을 추적하는 것은 1930년대 중국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II. 실향과 실직 이후 언론 활동

두중위안은 일본 도쿄 고등공업학교에서 요업(窯業)을 전공한 후 1923년 선양에서 자오신(肇新) 도자기 회사를 설립해 중국 도자기 생산의 기계화에 성공한 민족 사업가였다. 자오신 회사는 설립 첫해에 50만 개 이상의 도자기를 생산했고 1931년에는 연간 1,000만 개의 생산을 목표로 삼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는 라오닝 상업 총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의 유력한 경제인으로서 자리하였다. 1934년에는 전국경제위원회 장시 분치의 초청을 받아들여 장시성 정부에 의해 ‘장시 도자기 관리국’의 국장으로 임명되었고, 경덕진 도자기 산업 개혁에 참여한 바 있다.<sup>111)</sup>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동북 지역이 일본에 점령되자 두중위안은 항일 구국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동북민중항일구국회’의 주요 인물로서 활동하며, 베이징과 상하이로 오가며 항일 단체들과 협력했다. 두중위안은 만주사변이 일어난 이후 관내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1931년 12월부터 1933년 3월까지, 그는 『생활(生活)』 주간지에 20편의 「여행통신」을 게재하면서 베이징과 톈진, 상하이로 비롯한 쓰촨, 후베이, 후난, 장시, 안후이, 광둥, 푸젠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 이 기간에 그는 선권루(沈鈞儒), 쩌우타오편(鄒韜奮), 가오충민(高崇民) 등과 함께 구국회를 조직하며 항일을 외쳤고, 동북의 의용군과 1·28 상하이 전투에서 일본군에 맞선 19로군을 지지했다. 1933년 말, 15만 부 이상 판매되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생활』 주간지는 “독립적 언론 정신”을 유지하며 항일 구국을 호소하고 국민정부의 부패를 폭로하다가 결국 폐간되었다. 편집장 쩌우타오편은 국외로 망명했다.

1934년 2월, 두중위안은 『신생』 주간지를 창간했다. 『신생』은 “일반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며 편향되지 않고 당파적이지 않으며 민족 생존을 위해 싸운다”<sup>112)</sup> 발간 취지를 내세웠다. 『신생』은 『생활』의 편집인 구성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 아니라 지면 구성과 문투 등 『생활』을 계승했다. 두중위안은 자신의 칼럼 「솔직한 이야기(老實話)」를 통해 정치와 사회 문제를 비판했다. 주로 일본 제국주의와 국민정부를 비판하며 독자들에게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쩌우타오편의 『생활』의 「소언론(小言論)」과 유사했다.<sup>113)</sup>

111) 胡塵紅, 「杜重遠與景德鎮瓷業改革」, 南昌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112) 杜重遠, 「發刊詞」, 『新生周刊』創刊號(1934.02.10).

113) 徐明, 「杜重遠與《新生》周刊中的抗戰精神」, 52쪽.

『신생』은 항일 선전, 즉 일본의 침략 음모를 폭로하고 대중의 항일 의식을 크게 고취하기 위한 서술이 중심이었다. 두중위안은 민중들이 항일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지도층 대신 민중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구국의 열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글에서는 진정한 구국의 열사가 가난한 민중 속에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항일 열사 덩테메이 추모(悼抗日志士鄧鐵梅君)」<sup>114)</sup> 등의 글을 통해 항일 열사들의 고결한 정신을 기리고, 민족의 항일 정신이 죽지 않았음을 역설했다. 그는 “일본의 ‘중일 친선’ 논조는 중국을 마비시키려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발간사에서 “중국이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몇몇 전쟁에 능한 군사 지도자가 한두 달 전쟁을 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몇몇 재능 있는 외교관이 국제 문제를 협상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또한, 몇몇 학문적 도둑질을 일삼는 학자나 정치적 부랑자들이 허울뿐인 구호를 내건다고 해서 4억 5천만 중국인을 물과 불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sup>115)</sup> 하면서 간접적으로 국민정부의 적극적이지 않은 항일 노선을 비판했다.

국민정부는 이러한 항일 선전 활동을 위한 언론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난징 국민정부는 중국 근대 정부 중 최초로 검열제도를 중앙 집권화하였다. 『신생』이 발간되던 시기는 중국에서 항일 구국 운동에 대한 여론이 상대적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시기였다.<sup>116)</sup> 이 시기 국민당은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항일 구국 운동과 관련한 출판물 및 인사들을 철저히 단속했다. 1934년 8월 중앙 집행위원회 산하 기구로 중앙조사신문처(中央檢查新聞處)가 설립하여 전국의 검열 기구들을 관리하고 여러 도시의 신문검열을 관리하였다.<sup>117)</sup>

이러한 조치로 1935년 『신생』이 국민정부에 의해 폐간되었다. 5월 4일 게재된 『신생』의 기사 「황제에 대한 잡담(閑話皇帝)」이 일본 천황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일본 측의 도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한담황제 사건).<sup>118)</sup>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고조 유방(漢高祖劉邦)이 진시황(秦始皇)이 순시하러 나가는 성대한 장면을 보고 대장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탄식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즉, 황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 황제가 되고 싶어지는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는 것인가는 모두 그들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핑계라고 하였으며, 현재 세계에는 황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남은 몇 명의 황제는 모두 괴뢰 황제라고 하였다. 그리고 각각 일본, 영국, 유고슬라비아, 태국 황제의 실상을 거론하며 그들이 괴뢰라고 하였다. 그 중 만주국 황제 푸이(溥儀)는 괴뢰 중의 괴뢰라고 하는 글이다. 일본은 천황을 모욕했다는 뜻으로 군함을 상하이 우

114) 杜重遠, 「悼抗日志士鄧鐵梅君」, 『新生周刊』第一卷第三十五期(1934.10.06.)

115) 杜重遠, 「發刊詞」, 『新生周刊』創刊號(1934.02.10.)

116) 杜重遠, 「發刊詞」, 『新生周刊』(1934.02.10.)

117) 「檢查新聞辦法大綱(1934年 8月 9日)」, 中國第二曆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五輯 第一編 文化(一), 鳳凰出版社, 1998. 91쪽.

118) 易水, 「閑話皇帝」, 『新生周刊』第六十五期(1935.05.04.)

쑹커우(吳淞口)까지 진입시키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아 국민정부는 『신생』을 폐간 조치하고 편집 책임자인 두중위안을 처벌하였다. 두중위안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sup>119)</sup>

이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언론 탄압의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판결과 관련된 비밀문서는 두중위안의 활동이 국민당 정부에 정치적 위협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일은 ‘신생사건’으로 불리게 되면서, 두중위안은 대중에게 더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생계를 잃고 또다시 정착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 결국 ‘장시 도자기 관리국’의 국장을 내려놓고 경덕진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두중위안이 창간한 『신생』은 1935년 6월 22일자의 72호로 멈추게 되었다.

### Ⅲ. 항일 선전과 신장에서의 활동

1936년, 두중위안은 징역형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출소 후 1년 동안 두중위안은 항일 여론을 만드는 일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항일 전선 오가면서 다양한 기록을 통해서 사건을 전달하는 일을 자처하였다. 이때 두중위안은 실항의 공간에 대해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침략당하지 않는 중국 영토에 관한 생각을 강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뜻밖에 두중위안의 활동은 신장(新疆)의 성스차이(盛世才)에 포착되었다. 두중위안은 성스차이에게 초청을 받아 신장으로 이동했다. 두중위안이 저술한 『성스차이와 신신장(盛世才與新新疆)』에서 그는 신장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를 “이 기묘한 곳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으며”, “항일 전쟁이 격화되면서, 나는 신장을 직접 탐험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였다.<sup>120)</sup> 그가 밝힌 동기로 미루어보아, 두중위안은 신장을 ‘미지의 공간’으로 이해하며, 책 곳곳에서 보이는 신장을 영토 중심의 환상을 채워줄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의 성스차이는 갑자기 왜 두중위안을 신장으로 초대했던 것일까. 신장 변방독관 성스차이는 자신이 이룩한 ‘6대정책’의 신장을 내륙에까지 소개하고, 항일이라는 맥락으로 신장을 단결시키려고 하였다. 그는 성스차이 신장성 정부의 ‘신신장 건설’의 핵심은 ‘친소’이면서도 ‘반제’를 강조하였으며 제국주의 가운데서도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이 핵심이었다. 사실상 신장은 일본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았지만, 성스차이는 일제의 ‘만몽 건설’ 다음 타겟은 신

119) 金沖及, 「杜重遠和《新生》周刊 《歷史研究》」, 2000年 5月; 「關於判決杜重遠《新生周刊》案秘密檔案」, 檔案與史學, 1999(05), 10~12쪽.

120) 杜重遠, 『盛世才與新新疆』, 生活書店, 1938, 2쪽.

장이 될 것이라 여겼고, 일제의 침략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대비해야 한다고 신장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sup>121)</sup> 이에 항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각지의 항일 전선을 누비는 두중위안은 성스차이에게 마땅히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게다가 두중위안은 성스차이와 동향이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인물로서<sup>122)</sup> 성스차이가 그에게 친근함을 느낄 만했다. 당시 독판공서 비서처에서 근무했던 리밍장(李明章)은 “두중위안 선생이 신장에 온 이유는 본래 성스차이의 초청에 응하여 개인적인 방문을 하기 위함이었으며,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다. 성스차이는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인재를 끌어모으는 정책을 펼쳤으며, 그 일환으로 동북 출신인 두중위안을 포섭하려 했다.”라고<sup>123)</sup> 하였다.

두중위안은 신장으로 가기 위해 국민정부 교통부의 임무, 즉 성스차이와 서북 지역 교통 문제를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이동했다. 이동할 때 신장 주경(駐京) 대표 장위안푸(張元夫)와 동행했다. 그는 1937년 10월 처음으로 신장을 방문했고 이때 성스차이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이 방문으로 두중위안은 신장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민족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와 「신장으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20편의 기사를 『항전(抗戰)』과 『전민항전(全民抗戰)』에 신장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연재하여 내륙 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1938년 이때 적었던 글은 『성스차이와 신장』이라는 책으로 정리, 출판되었다. 이 책은 내륙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많은 진보적 인사와 청년들에게 신장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하였고, 성스차이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켰다고 평가받았다.

1938년 6월 두중위안은 신장에 다시 방문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신장성 정부와 ‘제2차 3년 계획’을 협의하였다. 1938년 10월 신장에서 열린 전신장대표대회에 ‘중앙정부 대표’로 참석해 신장 당국과 금광 개발 문제를 논의했다. 곧이어 성스차이는 공식적으로 “두중위안을 신장 독판공서 고문 겸 신장학원 원장으로 임명한다”라는 명령을 공포했다. 리밍장(李明章)은 두중위안이 신장 원장 원장으로 임명된 때를 회고하며, 당시 사람들은 성스차이가 두중위안을 매우 중시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당시 ‘10대 박사’(성스차이의 동향 출신 측근)들을 훨씬 능가하는 대우였다고<sup>124)</sup> 하였다.

신장학원의 원장이 된 두중위안은 신장 지역의 문화 발전과 항일 후방 기지 건설에 목표를 두고 활동하였다. 또한 신장학원이 교육과 민족 단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고 ‘항일 건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두중위안은 정치경제학과, 교육학과, 언어문학과 등을 설립하고, 명망

121) 이선희, 「1930~1950년대 중국의 신장 인식과 정책」,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84~85쪽.

122) 張大軍, 『新疆風暴七十年』 7, 蘭溪出版社, 1980, 4002쪽.

123) 李明章, 「杜重遠來新和被害經過見聞」,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25~31쪽.

124) 李明章, 「杜重遠來新和被害經過見聞」,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25~31쪽.

높은 학자와 예술인을 초빙해 학문과 문화를 진흥시켰다. 신장의 교육계에는 연안 등지에서 건너 온 중국공산당 인사들도 상당히 포진되어 있었다. 일찍이 중국공산당은 신장으로 파견되어 교육기관이나 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다. 두중위안은 이들과 협력하여 신장학원을 개선하고 운영하였다. 예컨대, 두중위안은 신장학원 원장을, 중국공산당원인 귀춘(郭春)은 교육장을 맡았다. 마오둔(茅盾), 장중스(張仲實), 싸쿵리(薩空了), 자오단(趙丹) 등의 유명 인물들이 신장으로 와서 교육과 문화 발전에 참여했다.<sup>125)</sup>

두중위안은 홍콩에서 진보적 서적과 마르크스주의 관련 서적을 수입하여 학문적 기반을 강화했다. 두중위안은 학문과 실천을 결합한 교육 방식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毛澤東)의 「지구전론(論持久戰)」을 강의하며 학생들과 함께 야외에서 유격 훈련을 하였다. 또한, 매주 학생들에게 시사 정치 강연을 열었고, 학생들의 일기를 직접 검토하며 문학적, 정치적 성장을 돕고자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글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중위안은 학생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하며 교칙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매일 자습과 기숙사 상황을 점검하며 모범을 보였다. 두중위안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소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 그는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같은 음식을 먹었고, 대청소 날에는 항상 솔선수범하여 노동에 참여했다.<sup>126)</sup>

두중위안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1939년 5월 4일, '5·4 운동' 20주년을 기념하여 전교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념 대회를 조직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학가 마오둔에게 '5·4 운동'에 대한 강연을 하도록 했으며, 직접 '5·1', '5·3', '5·7', '5·10', '5·30' 등 주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작성하고 발표했다. 이 강연과 보고 내용은 학원 잡지 『신망(新芒)』에 동시에 게재되었다.<sup>127)</sup>

1939년 여름, 두중위안은 200여 명의 각 민족 인사로 구성된 '신장학원 여름 이리 여행단'을 조직하여 북신장의 창지(昌吉), 후투비, 우쭈(烏蘇), 두산쯔(獨山子), 징허(精河), 이리 등지로 현지 사회 시찰과 항일 선전 활동을 하였다. 두중위안은 여행단 설립 이전에도 학생들에게 항일운동에

125) 마오둔과 장중스가 신장학원에 초빙되어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학원에서는 성대한 환영 대회를 열었다. 두중위안은 큰 감격을 담아 “선옌빙(沈雁冰, 마오둔의 본명)과 장중스 선생을 환영하는 노래”를 직접 작사하여 발표했다. 다음은 그 가사이다. 우리는 새로운 신장의 청년들/천산 남북에서 사방에서 모였다/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청년들의 지도자들이여/ 학원을 위해 싸우기 위해 오신 것을!/우리는 여러분의 지도를 환영하며/변방 문화를 빛나게 발전시키길 원합니다./우리는 신장학원에서 배우며/청년을 양성하는 중대한 임무를 당신들의 어깨에 맡깁니다/단결, 긴장, 소박, 활발함으로/황사 만 리, 고비 사막의 변두리도 두렵지 않다/우리는 신장의 청년들, 우리는 싸운다, 싸운다!/항일 건국의 성공은 멀지 않다. 이러한 환영 행사에 직접 노랫말을 지어서 부르게 했다는 것과 그리고 가사를 통해 두중위안이 신장에서 애국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문화적 방면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高啓榮, 「杜重遠在新疆」,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162~170).

126) 高啓榮, 「杜重遠在新疆」,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162~170쪽.

127) 高啓榮, 「杜重遠在新疆」,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162~170쪽.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는 학생들을 조직해 선전대를 꾸리고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에게 항일 정치 상황을 알리고 전쟁 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모금을 독려했다.<sup>128)</sup> 두중위안이 단장, 귀춘과 장중스가 부단장을 맡아 이리 경비사령부가 보낸 트럭 12대에 타고 농목지구를 돌며 항일을 선전했다. 이들은 각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벽과 전신주에 항일 선전 문구를 써 붙였고, 지역 주민들과의 대규모 집회를 열어 항일 전쟁의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 활동의 결과, 많은 주민이 추운 겨울 옷을 모으고 현금을 통해 전선 지원 운동에 참여했다.<sup>129)</sup> 현지 대중에게 항일 정세를 선전·보고하고 함께 간 학생들이 「휘날리며」, 「노구교변」, 「민족혼」 등 항일을 주제로 한 연극을 하고 합창과 무용과 같은 문예 프로그램을 공연하였다. 항일 선전을 위한 표어를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한 달여 동안 8개 현을 방문하고, 1,400여 리를 오갔다. 이때 군중대회에서 50여 차례 연설했다. 이들의 선전 활동은 신장 각지 민족이 항일 애국 교육을 받게 하고 항일 구명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sup>130)</sup>

국민정부는 두중위안 등 인사들이 신장에서 활동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행정원은 교육부에 마오둔(茅盾), 사공략(沙公略) 등이 신장에서 문화협회를 조직한 사건에 대해 주의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sup>131)</sup> 통지문 내용에 따르면 국민정부는 ‘좌익 문화인’인 마오둔, 사공뤄(沙公略), 장중스(張仲實) 등이 올해 8월 신장 당국의 초청을 받아 신장으로 이동하였던 것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들이 신장 문화협회를 설립하였으며, 마오둔은 주임(正主任), 장중스는 부주임(副主任), 사공뤄는 『신장일보(新疆日報)』의 총편집이며 이들 모두 신장학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 IV. 신장에서의 갈등과 숙청

두중위안의 신장에서의 여론 조성 활동 및 신장의 사정을 내륙으로 알리는 글쓰기 운동은,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온 것은 아니었다. 신장 하미 출신 울바르스 칸은 1938년 5월 국민정부 몽장 위원회에 한 통의 전보를 보내 두중위안을 고발하고자 하겠다고 하였다. 그가 쓴 『성스차이와 신 신장』은 성스차이의 공적을 찬양하고 그의 항일 구망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 책에서 신장에서 일어나는 각지의 반란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sup>132)</sup>

128) 高啓榮, 「杜重遠在新疆」,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162~170쪽.

129) 高啓榮, 「杜重遠在新疆」,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162~170쪽.

130) 王晉林·秦生, 『挽救民族的危亡: 西北抗日救亡史』,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221쪽.

131) 「行政院請教育部注意茅盾沙公略等在新疆組織文協案的通知單(1939年 12月 27日)」, 中國第二曆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五輯 第二編 文化(二), 鳳凰出版社, 1998. 223쪽.

올바르스 칸은 이에 모욕을 느껴 국민정부에 고발한 것이다. 국가 법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두중위안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는 글을 몽장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국민정부는 올바르스 칸의 요구대로 두중위안의 책을 검토했는데 “오해를 일으킬 몇 문장만 삭제하면, 두중위안의 책은 개정 출판법 및 심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였다.<sup>132)</sup> 두중위안의 글이 지나치게 성스차이를 찬양하고 있고 국민정부가 주목하는 ‘좌익 언론인’이 맞지만, 일본과의 전쟁 중인 이 시기에 항일을 주제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를 엄하게 벌하기에 국민정부로서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다만 이후 올바르스 칸을 후에 국민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장 참의로 임명하고 국민당 중앙감찰위원의 자리로 보진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두중위안과 성스차이를 비판하는 올바르스 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민정부는 그 이후에서 신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태를 파악하는 자료를 꾸준히 접수받았다. 1939년 9월의 보고에서, 신장성 정부의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 두 번째 3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신장성 정부가 추진하는 3개년 계획은 경공업과 중공업의 발전 및 산업 기술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기술 인력 양성은 순환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무와 교육을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다. 성스차이의 ‘6대정책’ 시행의 보고와 더불어 각종 문화정책의 추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정부가 좀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성스차이가 돌연 두중위안의 고문직을 박탈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이후 신장학원은 폐쇄되었던 것이다.<sup>134)</sup>

신장 내에 있던 인물들도 이런 성스차이의 태도 변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성스차이는 자신 개인의 특무조직을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반란을 획책했다’라는 죄명으로 반대파 인사들을 처벌했기 때문이다. 성스차이 집권 시기 ‘변방 안정’을 목표로 한 ‘신신장 건설’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행해졌다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정변을 일으킬 만한 세력을 미리 정탐하여 조사하다가 빌미를 만들어 일괄 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포섭한 세력들이 결속의 움직임을 보이고 직접 행동에 나서면 소련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안정시키고 핵심 인물들을 신장 밖으로 내보내서 화근을 없애는 것이다. 사실 신장성 정부가 신장의 위기를 미리 막거나 위기가 발생하면 안정시킨다는 도식은 성스차이의 권력을 강화하는 확실한 방법이었다.

1941년 5월 18일, 성스차이는 두중위안을 “왕징웨이(汪精衛) 계열의 음모 폭동 사건”의 주모

132) 「新疆哈鎮警備司令堯樂要求嚴懲杜重遠以維國家法律尊嚴致蒙藏委員會呈(1938年 5月 2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 第五輯 第二編 政治(四), 鳳凰出版社, 1998. 770-771쪽.

133) 「內政部爲准予出版杜重遠所著『盛世才與新新疆』一書致蒙藏委員會公函(1938年 7月 2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 第五輯 第二編 政治(四), 鳳凰出版社, 1998. 771쪽.

134) 李明章, 「杜重遠來新和被害經過見聞」,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25-31쪽.

자로 몰아 체포했다. 두중위안은 “왕징웨이, 저우푸하이(周佛海), 천공보(陳公博)의 지시를 받아 항일 후방을 파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신장 특별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 사건으로 천여 명이 연루되었으며, 두중위안이 신장으로 초청했던 인사들도 대부분 체포되었다. 성스차이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연금되었다가 “비밀공산당원”, “전복활동을 하려했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었다. 체포된 근거는 두중위안은 신장에서의 행보와 정반대인, 진보를 위장한 ‘매국노’ 라는 것, 국민정부에 몸을 의탁한 후 중국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신장에서 음모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에 있었다.<sup>135)</sup> 또한 성스차이는 두중위안을 “트로츠키주의자”라고 하였는데, 성스차이가 내세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두중위안이 자백했다고 하였다.<sup>136)</sup>

하지만 당시에도 성스차이의 보고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두중위안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의아해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두중위안과 성스차이의 주요 갈등이 정치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스차이는 본래 잔인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으로 반대자를 용납하지 않는 독재자인데 반해 두중위안은 성품이 강직하고 굴복하지 않는 성향이었다고 표현하였다.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서 두 사람은 자주 의견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심화되었다고 하였다.<sup>137)</sup> 두중위안이 체포된 이유로 성스차이의 질투 때문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두중위안의 교육활동과 항일 선전 활동으로 두중위안의 명성이 높아지자 성스차이가 이를 질투하게 되고, ‘반동 군벌’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보적 인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는 것이다.<sup>138)</sup>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1939년 하반기부터 성스차이는 두중위안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그의 활동을 제약하기 시작했고, 두중위안이 1940년 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신장학원 원장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성스차이는 이를 즉각 수락하며 두중위안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를 가택 연금했다는 것이다.<sup>139)</sup> 하지만 두중위안은 국내외적으로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기에 성스차이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 조직인 ‘오성사(五星社)’를 통해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것이다.<sup>140)</sup>

두중위안이 정치적 숙청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이야기만 있던 이유는, 그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자백을 받는 과정이 당시에도 면밀하게 납득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두중위안이 사망하게 된 원인으로 ‘성스차이에 의한 독살’을 많이 거론하는데, 이 역시 옥중 독살되었다는 설,<sup>141)</sup> 출소 된 이후에 자택에서 성스차이가 건넨 사과를 먹고 독살되었

135)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二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188~189쪽.

136) 高啓榮, 「杜重遠在新疆」,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162~170쪽.

137) 李明章, 杜重遠來新和被害經過見聞

138) 高啓榮, 「杜重遠在新疆」,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162~170쪽.

139) 高啓榮, 「杜重遠在新疆」,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162~170쪽.

140) 李明章, 「杜重遠來新和被害經過見聞」,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25~31쪽.

다는 것, 성스차이가 두중위안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만찬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독이 든 술을 마셨다는 것,<sup>142)</sup> 확인되지 않은 발열과 두통 등 의식을 잃다 몇 주 후 생을 마감했고 이를 성스차이가 단순한 병사(病死)로 위장하였다는 설<sup>143)</sup> 등의 여러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1941년 광둥성 도서잡지검열위원회가 제출한 「(마오둔 선생이 말한 두중위안의 신장에서의 억류 경위 관련 문건(茅盾先生談杜重遠在新被扣經過)」에서는<sup>144)</sup> 함께 두중위안과 신장에서 활동했던 마오둔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다. 마오둔의 증언에 따르면 성스차이가 두중위안을 압박하게 된 사건은 총 세 가지이며, 첫 번째 사건은 1939년 가을 즉 여름방학이 끝난 후였다. 마오둔은 개인적인 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1939년 여름 동안 신장학원의 여행단 활동에 두중위안과 장중스가 참여하였다. 이 여행은 민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장 당국과 신장성 변방독판 성스차이의 허가를 받았으며 모든 경비는 신장성 정부가 지원한 것이었다. 여행이 끝난 후 두중위안과 장중스 모두 병을 얻었는데 이로 인해 외부에서 두 사람이 이 여행을 통해 공금을 낭비했다거나 이리(伊犁)로 간 목적이 따로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소문은 신장성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확인되거나 부정되지 않았지만 관료 사회에서는 점점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하였다.<sup>145)</sup>

두 번째 사건은 학원에 신장 당국과 친분이 있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연애 문제로 두중위안, 장중스 두 사람과 갈등을 겪었다. 학원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이 학생을 부르셔서 훈계하자 이 학생은 이를 참지 못했고,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관료들에게 두 선생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고 한다. 이로 인해 두 선생님에 대한 신장 관료 사회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다. 세 번째 사건은 디화(迪化, 현재의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연극 지원 문제였다. 당시에 유명 배우 자오단(趙丹) 등이 신장을 방문해 연극 공연을 했고 학원의 학생들이 이를 도왔다. 그러나 학기가 시작된 후 다시 연극 지원 요청이 들어오자 두중위안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였다. 이 단순한 거절이 관료 사회에서 두중위안과 장중스가 신장의 입장에 반한다는 비난으로 확대되었고, 성스차이도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두중위안, 장중스는 성스차이에게 편지를 보내 사임

141) 馮曉蔚, 「杜重遠新疆遇害始末」, 『文史春秋』 2018年 第7期, 12~13쪽.

142) 高啓榮, 「杜重遠在新疆」,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162~170쪽.

143) 李明章, 「杜重遠來新和被害經過見聞」,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25~31쪽.

144) 「茅盾先生談杜重遠在新被拍經過」(1941年 4月 8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 第五輯 第二編 政治(四), 鳳凰出版社, 1998, 771쪽. 광둥성 도서잡지검열위원회 문서 번호 제341호, 도서잡지검열위원회 제14주차 “등재 면제 또는 삭제 수정 원고 목록” 1부와 함께 『신화난(新華南)』(신화난) 제3권 제5호에 실린 「마오둔 선생이 말한 두중위안의 신장에서의 억류 경위(茅盾先生談杜重遠在新被扣經過)」라는 원고 1부를 첨부하여 심사를 요청한다고 하는 문건에서 확인 하였다.

145) 「茅盾先生談杜重遠在新被拍經過」(1941年 4月 8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 第五輯 第二編 政治(四), 鳳凰出版社, 1998, 771쪽.

의사를 밝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휴양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충칭이나 소련이었는데,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악의적 소문이 점점 심각해졌다. 마오둔은 두 사람이 억류된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신장 내부에서 외면 받고 성스차이에 의해서 억류 및 최후를 맞이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라고 하였다.<sup>146)</sup> 이러한 증언으로 보아, 두중위안의 최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명분 없는 일이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상황에서도 성스차이가 두중위안을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를 들어 제거한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두중위안의 체포 및 숙청이 있고 나서 그 다음해인 1942년 3월, 성스차이가 지금까지의 친소정책을 버리고 국민정부로 '전변'을 택하는 일이 일어났다. 성스차이가 소련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이 결정은 3월 19일에 일어난 신장 기계화여단장 성스치(盛世驥)의 피살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스치는 성스차이의 4번째 동생으로 한밤중에 자택에서 총격당해 사망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성스치의 아내인 천시우잉(陳秀英)과 신장성 정부 관리 인사 500여 명이 잇달아 체포되었다. 관련 혐의로 교육청장, 재정청장, 허톈(和闐) 경비사령 행정장, 『신장일보』 사장 등이 함께 체포되었다. 또한 마오쩌민(毛澤民) 등 신장에 들어와 있던 중국공산당의 인사들을 대부분 체포했고 구금하였다. 두중위안의 체포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대적인 공안정국이 이루어지자, 두중위안의 숙청 역시 중국공산당의 숙청과 더불어서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다.

성스차이의 '전변' 이후인 1943년 4월 국민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왕더푸(王德溥) 내무부 차장을 비롯한 '중앙재판단'을 파견해 신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즉 '4·12 사건', '두중위안 사건', '아산 폭동 사건' 등을 재심했다. 재심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4명으로 왕더부(王德搏) 외에 이원부(교통부 전관, 군통특무), 주수성(최고법원 평사), 정대륜(군사위원회 군법총감부 검사, 군통특무)이다.<sup>147)</sup> 이들은 모두 동북 출신으로 성스차이와 동향인 데다가 1943년 시기 성스차이는 국민당 신장지부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들이 신장으로 온 이후 성스차이의 대접을 받았다는 기록을<sup>148)</sup> 확인하면, 두중위안에 대한 재심은 큰 변화 없이 넘어가게 된 정황을 이해할 수 있다. 재심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성스차이가 신장에서 권력을 잃지 않았을 때이고, 이후에도 국민정부에 반하는 신장 내 중국공산당 내의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에 두중위안은 혐의를 벗지 못하고 두중위안의 사건이 오히려 신장 내 중국공산당의 세력 제거와 더불어 언급되기 시작했다.

146) 「茅盾先生談杜重遠在新被拍經過」(1941年 4月 8日), 中國第二曆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五輯 第二編 政治(四), 鳳凰出版社, 1998. 771쪽.

147)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二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222~223쪽.

148)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二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222~223쪽.

## V. 맺음말

두중위안은 1931년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실향과 실직을 동시에 경험한 인물이었다. 기업인으로 서의 삶을 타의에 의해서 마무리한 이후에 그가 선택한 길은, 항일 여론을 만들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언론인의 삶이었다. 두중위안은 매우 적극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였고 언론사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였다. 두중위안의 활동이 일본과 국민정부의 압박으로 좌절되자, 활동 범주를 넓혀 중국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항일 여론을 만드는 일을 행했다. 이때 두중위안은 실향의 공간에 대해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침략당하지 않는 중국 영토에 관한 생각을 강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활동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신장성 정부 변방독판 성스차이었다.

두중위안이 신장으로 가기까지의 목적을 그가 서술한 글에 근거하여 추정하면, 그가 어떠한 정치적인 공훈을 얻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중국의 영토 중심적인 사고에 기반하여 항일 여론을 확대하고자 했던 의도에 따라서 신장으로의 이동을 결정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신장에 들어와서도 그의 활동은 신장 행정업무가 아닌 교육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그의 활동은 1930년대 내내 이루어진 언론 활동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는데, 신장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항일 여론을 복돋기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행했다.

래너미터는 두중위안의 항일 선전 활동이 “장제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였다.<sup>149)</sup> 중일전쟁을 통해서 한층 단결되고 중앙집권화되리라 믿은 결과가 두중위안의 활동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국민정부는 두중위안을 ‘좌익 언론인’으로 규정하고 그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보고 하기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두중위안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두중위안의 언론 활동을 중일 관계를 해치는 ‘과격함’ 활동으로 보고 징역형을 내릴 정도였다. 하지만, 두중위안이 출소한 이후에 국민정부를 비판하는 어조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정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항일에 대한 여론 환기에 더욱 매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두중위안의 활동에서 중국공산당과의 연계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다. 신장에서 중국공산당 활동 시기와 두중위안이 머물던 시기가 겹쳤을 뿐, 숙청되었던 이유와 시기 등을 살펴보아도 중국공산당과 큰 연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에서 두중위안을 중국공산당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그의 활동을 설명하거나 그를 '좌익 언론인'으로 정의하며 그의 애국 활동을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두중위안이 남긴 기록을 보면 국민정부나 중국공산당과의 뚜렷한 관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독립적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149) 래너 미터 저, 기세찬·권성욱 역, 『중일전쟁: 역사가 망각한 그들 1937-1945』, 글항아리, 2020, 145쪽.

## 참고문헌

『新生周刊』

中國第二曆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 第五輯 第一編 文化(一), 鳳凰出版社, 1998.

中國第二曆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 第五輯 第二編 文化(二), 鳳凰出版社, 1998.

中國第二曆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 第五輯 第二編 政治(四), 鳳凰出版社, 1998.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二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

張大軍, 『新疆風暴七十年』 7, 蘭溪出版社, 1980.

杜重遠, 『盛世才與新新疆』, 生活書店, 1938.

「關於判決杜重遠《新生周刊》案秘密檔案」, 档案与史学, 1999(05).

래너 미터 저, 기세찬·권성욱 역, 『중일전쟁: 역사가 망각한 그들 1937~1945』, 글항아리, 2020.

王晉林·秦生, 『挽救民族的危亡: 西北抗日救亡史』,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楊曉陶, 「杜重遠“實業救國”之路」, 『黨史縱橫』, 2014(11).

黃衛東, 「實業救國的民主戰士杜重遠」, 『黨史縱橫』, 2012(07).

胡塵紅, 「杜重遠與景德鎮瓷業改革」, 南昌大學碩士學位論文, 2005.

黃繁·胡小紅, 「民國時期杜重遠景德鎮瓷業改革述論」, 『贛南師範學院學報』. 2010(04).

黃繁川, 「杜重遠與肇新窯業公司」, 『蘭台世界』, 1999(02).

齊丹丹·薛靜文, 「愛國窯業實業家杜重遠」, 『蘭台內外』, 2024(06).

徐明, 「杜重遠與《新生》周刊中的抗戰精神」.

白曉菲, 「杜重遠的救國思想研究」, 西安石油大學 碩士學位論文, 2023.

- 周天度, 「杜重遠與30年代抗日救國運動」, 『抗日戰爭研究』, 1999(04).
- 魯麗娟·暖融, 「燭照千秋的人格魅力——試論杜重遠先生與青年」, 『徐州師範大學學報』, 2000(02).
- 陳志平, 「試論愛國報人杜重遠與新疆的文化教育事業」, 『現代職業教育』, 2018(34).
- 白曉菲·劉輝, 「杜重遠的青年愛國主義教育觀及實踐」, 『現代商貿工業』, 2023, 44(03).
- 魯麗娟·暖融, 「燭照千秋的人格魅力——試論杜重遠先生與青年」, 『徐州師範大學學報』, 2000(02).
- 馬泵強, 「杜重遠: 從實業家到愛國報人」, 『檔案』, 2003(01).
- 呂海洋, 「愛國救亡實業家——評張寶裕、楊美君、關繼廉著《杜重遠》」, 『佳木斯職業學院學報』, 2018(08).
- 徐建東, 「張學良與杜重遠的愛國友誼」, 『黨史文彙』, 2000(05).
- 胡塵紅, 「杜重遠與景德鎮瓷業改革」, 南昌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 馮曉蔚, 「杜重遠新疆遇害始末」, 『文史春秋』 2018年 第7期.
- 이선희, 「1930~1950년대 중국의 신장 인식과 정책」,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 金庸閏, 「南京 國民政府의 抗日政策 轉換의 背景-抗日 輿論의 推移를 中心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